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손흥민 보스톤 온다...16일 밤 질레트 구장서 보스톤 데뷔전



지난 6일 메이저리그 축구구단인 LAFC에 입단해 9일 첫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손흥민. 메이저리그 축구에 대한 팬들의 관심을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첫 게임 시카고 파이어와의 경기서 맹활약,
보스톤서도 기대
미국 대표팀 스타 팀 하워드, 손흥민 10점
만점에 10점인 선수

(뉴튼=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LAFC에 입단한 손흥민이 8월 16일 토요일 밤 7시 30분 팍스보로 소재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역사적인 첫 데뷔 무대를 갖는다.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6월 LA FC에 입단식을 가진 손흥민은 시카고 파이어와의 첫경기에서 후반 교체 멤버로 들어가 패널리티 킥을 얻어내는 등 존재감을 입증했다.

손흥민은 첫 경기를 가진 후 인터뷰에서 "정말 즐거웠다. 원정팀 팬들로 부터 이렇게 환영을 받은 적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한번도 없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원정팀 경기에 가면 야유를 받곤 했었다" 고 밝혔다. 손흥민

〈전체 기사 읽기〉

은 보스톤 데뷔전에서 시카고 못지 않는 환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레이터 보스톤을 대표하는 축구팀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은 현재 동부 컨퍼런스 9위에 위치한 하위팀이며 LA FC는 서부 컨퍼런스 5위로 비교적 레볼루션에 비해 우위에 있다.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은 손흥민 데뷔 무대를 기념해 한인 커뮤니티에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티켓은 보스톤코리아닷컴 기사 참조)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LAFC는 14일 목요일 보스톤에 도착해 컨디션을 조절한 후 토요일 보스톤 팬들과 만나게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마이클리 모기지

내 집 마련·투자·재융자,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 솔루션!
저금리 융자·재융자, 내 집 마련과 투자까지!
믿을 수 있는 모기지 해결사!
모기지 제일 잘 하는 마이클!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NMLS 1464242
978.314.8818 mtgwithmike@gmail.com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GMCC, NMLS 254895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Get Your Best Solution!

보스톤의 고민, 텅 빈 바이오 랩 어떻게 할 것인가

바이오 공실률 사상 최고치, 오피스 공실률은 약간 회복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서머빌 미들섹스 애비뉴에 새로 들어선 74M 빌딩 16층 편의시설 층에는 코발트 블루 소파와 스키볼(Skee-Ball) 게임, 그리고 보스톤 도심을 내려다보는 테라스가 있다. 로비에는 17미터 높이의 슬링키 장난감 조각이 서있고, 인근에는 어셈블리 로우 쇼핑몰과 오렌지 라인 지하철역이 있다. 최신 시설을 자랑하지만, 곧 문을 열 던킨 매장을 제외하면 이곳은 텅 비어 있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글로벌은 이 바이오 랩(Bio Lab) 빌딩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인근의 50만 평방피트 규모 바이오 랩 빌딩과 펜웨이파크 인근, 올스턴 웨스턴 애비뉴의 대형 복합건물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연구시설 수요를 기대하며 지난 5년간 그레이터 보스톤의 바이오 랩 공간은 4,840만 스퀘어피트로 두 배 가까이 늘었지 ▶7면으로 계속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 하늘에 휘날린 태극기...시청광장서 기념식

보스톤 시 주최, 시민협회 정치인턴들이 올해도 주역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13일, 보스톤 시청 메인 광장에 태극기가 휘날렸다.

보스톤 시가 주최하고 보스톤 총영사관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메인 광장에서 열렸다. 보스톤 총영사관 관계자들과 매사추세츠 한인회, 노인회를 비롯한 단체, 그리고 한인 가족들이 참가해 이날 태극기 게양식의 감동을 함께했다.

보스톤 시가 시청사에 태극기를 게양한 것은 지난해 8월 15일에 이어 두 번째이며, 메인 광장에서 게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인턴으로서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해나 맥밀런은 올해 보스톤 시 커뮤니케이션 스페셜리스트가 되어 행사를 진행했다.

보스톤 시 국제부 제임스 레기널드 콜리먼 부디렉터는 보스톤 한인 커뮤니티가 사회·문화·경제적 측면에서 기여한 점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은 보스톤과 한국 간 우호

〈전체 기사 읽기〉

관계를 돈독히 하고, 국가 간 협력과 평화, 그리고 상호 존중을 형성한다” 고 말했다.

김재휘 총영사는 “오늘 무더운 날씨에 보스톤 시청에서 열린 한국 광복절 기념 국기 게양식에 참가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 해나 맥밀런 커뮤니케이션 스페셜리스트와 레이철 허 인턴 두 사람의 이번 기념식 준비 노고를 치하했다. 또 김 총영사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한미 양국의 확고한 동맹을 재확인했다.

레이철 허 인턴의 미국 국가 독창에 이어 애국가가 연주되면서 국기 게양이 시작됐다. 김재휘 총영사를 시작으로 관계자들이 돌아가며 핸들을 돌려 태극기를 시청 국기 게양대에 높이 올렸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며 기념식은 절정에 달했다.

시민협회 정치인턴으로 올해 여름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레이철 허 인턴은 “애국가가 울리며 태극



13일 보스톤 시청 메인 광장에 열린 광복 80주년 태극기 게양 기념식에서 참가한 시관계자 및 보스톤총영사관 관계자 드리고 한인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기가 보스톤 시청 게양대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예쁘고, 가슴 뿌듯함을 느꼈다” 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미셸 우시장이 선거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으며, 과거 보스톤 시 정부 관련 업무 디렉터로 일했던 샘 현이 보스톤 업무 방문차 행사에 함께했다.

해나 맥밀런 스페셜리스트는 “

미셸 우시장이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장은 항상 한인 사회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태극기 게양식이 가능했던 것도 모두 우 시장의 지원 덕분이다. 내년에는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시청 광장을 지나던 미국인 펠릭

스씨는 태극기를 알아보고 행사에 관심을 보였으며, 광복절 기념 태극기 게양식임을 설명하자 “한국의 광복절을 기념하는 순간에 함께할 수 있어 좋았다” 고 말했다.

태극기 게양 후에는 보스톤 풍물 커뮤니티가 풍물을 연주했고, 시청사 3층에 마련된 공간에서 한식으로 준비된 식사가 제공됐다.

서울설렁탕
SEOUL SEOLLEONGTANG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SPICY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gyu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휴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클리닉, 검진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유람은 병원·약국·검진센터·시각센터를 보유하고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1. 혈액검사(신장기능, 비탄, 사해, 담즙, 혈당)
2. 청력검사(소음성난청)
3. 흉부검사(흉부촬영검사 7D에가자)
4. 안과검사(안압)
5. 심폐기능검사(호흡기·RAY, EXO, 노학성폐활량)
6. 도련사
7. 체지방검사
8. 부인검진(자궁경부암, 유방초음파)
9. 소화기검사(수면 위내시경)
10. 특수초음파(간사, 췌장, 담낭, 복부장기)
11. 분변 및 전문의 상담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오전 4시간 49만원

·가진·(3) 호부·(4) 청력·(5) 청력·(6) 청력·(7) 청력·(8) 청력·(9) 청력·(10) 청력·(11) 청력·(12) 청력·(13) 청력·(14) 청력·(15) 청력·(16) 청력·(17) 청력·(18) 청력·(19) 청력·(20) 청력·(21) 청력·(22) 청력·(23) 청력·(24) 청력·(25) 청력·(26) 청력·(27) 청력·(28) 청력·(29) 청력·(30) 청력·(31) 청력·(32) 청력·(33) 청력·(34) 청력·(35) 청력·(36) 청력·(37) 청력·(38) 청력·(39) 청력·(40) 청력·(41) 청력·(42) 청력·(43) 청력·(44) 청력·(45) 청력·(46) 청력·(47) 청력·(48) 청력·(49) 청력·(50) 청력·(51) 청력·(52) 청력·(53) 청력·(54) 청력·(55) 청력·(56) 청력·(57) 청력·(58) 청력·(59) 청력·(60) 청력·(61) 청력·(62) 청력·(63) 청력·(64) 청력·(65) 청력·(66) 청력·(67) 청력·(68) 청력·(69) 청력·(70) 청력·(71) 청력·(72) 청력·(73) 청력·(74) 청력·(75) 청력·(76) 청력·(77) 청력·(78) 청력·(79) 청력·(80) 청력·(81) 청력·(82) 청력·(83) 청력·(84) 청력·(85) 청력·(86) 청력·(87) 청력·(88) 청력·(89) 청력·(90) 청력·(91) 청력·(92) 청력·(93) 청력·(94) 청력·(95) 청력·(96) 청력·(97) 청력·(98) 청력·(99) 청력·(100) 청력·(101) 청력·(102) 청력·(103) 청력·(104) 청력·(105) 청력·(106) 청력·(107) 청력·(108) 청력·(109) 청력·(110) 청력·(111) 청력·(112) 청력·(113) 청력·(114) 청력·(115) 청력·(116) 청력·(117) 청력·(118) 청력·(119) 청력·(120) 청력·(121) 청력·(122) 청력·(123) 청력·(124) 청력·(125) 청력·(126) 청력·(127) 청력·(128) 청력·(129) 청력·(130) 청력·(131) 청력·(132) 청력·(133) 청력·(134) 청력·(135) 청력·(136) 청력·(137) 청력·(138) 청력·(139) 청력·(140) 청력·(141) 청력·(142) 청력·(143) 청력·(144) 청력·(145) 청력·(146) 청력·(147) 청력·(148) 청력·(149) 청력·(150) 청력·(151) 청력·(152) 청력·(153) 청력·(154) 청력·(155) 청력·(156) 청력·(157) 청력·(158) 청력·(159) 청력·(160) 청력·(161) 청력·(162) 청력·(163) 청력·(164) 청력·(165) 청력·(166) 청력·(167) 청력·(168) 청력·(169) 청력·(170) 청력·(171) 청력·(172) 청력·(173) 청력·(174) 청력·(175) 청력·(176) 청력·(177) 청력·(178) 청력·(179) 청력·(180) 청력·(181) 청력·(182) 청력·(183) 청력·(184) 청력·(185) 청력·(186) 청력·(187) 청력·(188) 청력·(189) 청력·(190) 청력·(191) 청력·(192) 청력·(193) 청력·(194) 청력·(195) 청력·(196) 청력·(197) 청력·(198) 청력·(199) 청력·(200) 청력·(201) 청력·(202) 청력·(203) 청력·(204) 청력·(205) 청력·(206) 청력·(207) 청력·(208) 청력·(209) 청력·(210) 청력·(211) 청력·(212) 청력·(213) 청력·(214) 청력·(215) 청력·(216) 청력·(217) 청력·(218) 청력·(219) 청력·(220) 청력·(221) 청력·(222) 청력·(223) 청력·(224) 청력·(225) 청력·(226) 청력·(227) 청력·(228) 청력·(229) 청력·(230) 청력·(231) 청력·(232) 청력·(233) 청력·(234) 청력·(235) 청력·(236) 청력·(237) 청력·(238) 청력·(239) 청력·(240) 청력·(241) 청력·(242) 청력·(243) 청력·(244) 청력·(245) 청력·(246) 청력·(247) 청력·(248) 청력·(249) 청력·(250) 청력·(251) 청력·(252) 청력·(253) 청력·(254) 청력·(255) 청력·(256) 청력·(257) 청력·(258) 청력·(259) 청력·(260) 청력·(261) 청력·(262) 청력·(263) 청력·(264) 청력·(265) 청력·(266) 청력·(267) 청력·(268) 청력·(269) 청력·(270) 청력·(271) 청력·(272) 청력·(273) 청력·(274) 청력·(275) 청력·(276) 청력·(277) 청력·(278) 청력·(279) 청력·(280) 청력·(281) 청력·(282) 청력·(283) 청력·(284) 청력·(285) 청력·(286) 청력·(287) 청력·(288) 청력·(289) 청력·(290) 청력·(291) 청력·(292) 청력·(293) 청력·(294) 청력·(295) 청력·(296) 청력·(297) 청력·(298) 청력·(299) 청력·(300) 청력·(301) 청력·(302) 청력·(303) 청력·(304) 청력·(305) 청력·(306) 청력·(307) 청력·(308) 청력·(309) 청력·(310) 청력·(311) 청력·(312) 청력·(313) 청력·(314) 청력·(315) 청력·(316) 청력·(317) 청력·(318) 청력·(319) 청력·(320) 청력·(321) 청력·(322) 청력·(323) 청력·(324) 청력·(325) 청력·(326) 청력·(327) 청력·(328) 청력·(329) 청력·(330) 청력·(331) 청력·(332) 청력·(333) 청력·(334) 청력·(335) 청력·(336) 청력·(337) 청력·(338) 청력·(339) 청력·(340) 청력·(341) 청력·(342) 청력·(343) 청력·(344) 청력·(345) 청력·(346) 청력·(347) 청력·(348) 청력·(349) 청력·(350) 청력·(351) 청력·(352) 청력·(353) 청력·(354) 청력·(355) 청력·(356) 청력·(357) 청력·(358) 청력·(359) 청력·(360) 청력·(361) 청력·(362) 청력·(363) 청력·(364) 청력·(365) 청력·(366) 청력·(367) 청력·(368) 청력·(369) 청력·(370) 청력·(371) 청력·(372) 청력·(373) 청력·(374) 청력·(375) 청력·(376) 청력·(377) 청력·(378) 청력·(379) 청력·(380) 청력·(381) 청력·(382) 청력·(383) 청력·(384) 청력·(385) 청력·(386) 청력·(387) 청력·(388) 청력·(389) 청력·(390) 청력·(391) 청력·(392) 청력·(393) 청력·(394) 청력·(395) 청력·(396) 청력·(397) 청력·(398) 청력·(399) 청력·(400) 청력·(401) 청력·(402) 청력·(403) 청력·(404) 청력·(405) 청력·(406) 청력·(407) 청력·(408) 청력·(409) 청력·(410) 청력·(411) 청력·(412) 청력·(413) 청력·(414) 청력·(415) 청력·(416) 청력·(417) 청력·(418) 청력·(419) 청력·(420) 청력·(421) 청력·(422) 청력·(423) 청력·(424) 청력·(425) 청력·(426) 청력·(427) 청력·(428) 청력·(429) 청력·(430) 청력·(431) 청력·(432) 청력·(433) 청력·(434) 청력·(435) 청력·(436) 청력·(437) 청력·(438) 청력·(439) 청력·(440) 청력·(441) 청력·(442) 청력·(443) 청력·(444) 청력·(445) 청력·(446) 청력·(447) 청력·(448) 청력·(449) 청력·(450) 청력·(451) 청력·(452) 청력·(453) 청력·(454) 청력·(455) 청력·(456) 청력·(457) 청력·(458) 청력·(459) 청력·(460) 청력·(461) 청력·(462) 청력·(463) 청력·(464) 청력·(465) 청력·(466) 청력·(467) 청력·(468) 청력·(469) 청력·(470) 청력·(471) 청력·(472) 청력·(473) 청력·(474) 청력·(475) 청력·(476) 청력·(477) 청력·(478) 청력·(479) 청력·(480) 청력·(481) 청력·(482) 청력·(483) 청력·(484) 청력·(485) 청력·(486) 청력·(487) 청력·(488) 청력·(489) 청력·(490) 청력·(491) 청력·(492) 청력·(493) 청력·(494) 청력·(495) 청력·(496) 청력·(497) 청력·(498) 청력·(499) 청력·(500) 청력·(501) 청력·(502) 청력·(503) 청력·(504) 청력·(505) 청력·(506) 청력·(507) 청력·(508) 청력·(509) 청력·(510) 청력·(511) 청력·(512) 청력·(513) 청력·(514) 청력·(515) 청력·(516) 청력·(517) 청력·(518) 청력·(519) 청력·(520) 청력·(521) 청력·(522) 청력·(523) 청력·(524) 청력·(525) 청력·(526) 청력·(527) 청력·(528) 청력·(529) 청력·(530) 청력·(531) 청력·(532) 청력·(533) 청력·(534) 청력·(535) 청력·(536) 청력·(537) 청력·(538) 청력·(539) 청력·(540) 청력·(541) 청력·(542) 청력·(543) 청력·(544) 청력·(545) 청력·(546) 청력·(547) 청력·(548) 청력·(549) 청력·(550) 청력·(551) 청력·(552) 청력·(553) 청력·(554) 청력·(555) 청력·(556) 청력·(557) 청력·(558) 청력·(559) 청력·(560) 청력·(561) 청력·(562) 청력·(563) 청력·(564) 청력·(565) 청력·(566) 청력·(567) 청력·(568) 청력·(569) 청력·(570) 청력·(571) 청력·(572) 청력·(573) 청력·(574) 청력·(575) 청력·(576) 청력·(577) 청력·(578) 청력·(579) 청력·(580) 청력·(581) 청력·(582) 청력·(583) 청력·(584) 청력·(585) 청력·(586) 청력·(587) 청력·(588) 청력·(589) 청력·(590) 청력·(591) 청력·(592) 청력·(593) 청력·(594) 청력·(595) 청력·(596) 청력·(597) 청력·(598) 청력·(599) 청력·(600) 청력·(601) 청력·(602) 청력·(603) 청력·(604) 청력·(605) 청력·(606) 청력·(607) 청력·(608) 청력·(609) 청력·(610) 청력·(611) 청력·(612) 청력·(613) 청력·(614) 청력·(615) 청력·(616) 청력·(617) 청력·(618) 청력·(619) 청력·(620) 청력·(621) 청력·(622) 청력·(623) 청력·(624) 청력·(625) 청력·(626) 청력·(627) 청력·(628) 청력·(629) 청력·(630) 청력·(631) 청력·(632) 청력·(633) 청력·(634) 청력·(635) 청력·(636) 청력·(637) 청력·(638) 청력·(639) 청력·(640) 청력·(641) 청력·(642) 청력·(643) 청력·(644) 청력·(645) 청력·(646) 청력·(647) 청력·(648) 청력·(649) 청력·(650) 청력·(651) 청력·(652) 청력·(653) 청력·(654) 청력·(655) 청력·(656) 청력·(657) 청력·(658) 청력·(659) 청력·(660) 청력·(661) 청력·(662) 청력·(663) 청력·(664) 청력·(665) 청력·(666) 청력·(667) 청력·(668) 청력·(669) 청력·(670) 청력·(671) 청력·(672) 청력·(673) 청력·(674) 청력·(675) 청력·(676) 청력·(677) 청력·(678) 청력·(679) 청력·(680) 청력·(681) 청력·(682) 청력·(683) 청력·(684) 청력·(685) 청력·(686) 청력·(687) 청력·(688) 청력·(689) 청력·(690) 청력·(691) 청력·(692) 청력·(693) 청력·(694) 청력·(695) 청력·(696) 청력·(697) 청력·(698) 청력·(699) 청력·(700) 청력·(701) 청력·(702) 청력·(703) 청력·(704) 청력·(705) 청력·(706) 청력·(707) 청력·(708) 청력·(709) 청력·(710) 청력·(711) 청력·(712) 청력·(713) 청력·(714) 청력·(715) 청력·(716) 청력·(717) 청력·(718) 청력·(719) 청력·(720) 청력·(721) 청력·(722) 청력·(723) 청력·(724) 청력·(725) 청력·(726) 청력·(727) 청력·(728) 청력·(729) 청력·(730) 청력·(731) 청력·(732) 청력·(733) 청력·(734) 청력·(735) 청력·(736) 청력·(737) 청력·(738) 청력·(739) 청력·(740) 청력·(741) 청력·(742) 청력·(743) 청력·(744) 청력·(745) 청력·(746) 청력·(747) 청력·(748) 청력·(749) 청력·(750) 청력·(751) 청력·(752) 청력·(753) 청력·(754) 청력·(755) 청력·(756) 청력·(757) 청력·(758) 청력·(759) 청력·(760) 청력·(761) 청력·(762) 청력·(763) 청력·(764) 청력·(765) 청력·(766) 청력·(767) 청력·(768) 청력·(769) 청력·(770) 청력·(771) 청력·(772) 청력·(773) 청력·(774) 청력·(775) 청력·(776) 청력·(777) 청력·(778) 청력·(779) 청력·(780) 청력·(781) 청력·(782) 청력·(783) 청력·(784) 청력·(785) 청력·(786) 청력·(787) 청력·(788) 청력·(789) 청력·(790) 청력·(791) 청력·(792) 청력·(793) 청력·(794) 청력·(795) 청력·(796) 청력·(797) 청력·(798) 청력·(799) 청력·(800) 청력·(801) 청력·(802) 청력·(803) 청력·(804) 청력·(805) 청력·(806) 청력·(807) 청력·(808) 청력·(809) 청력·(810) 청력·(811) 청력·(812) 청력·(813) 청력·(814) 청력·(815) 청력·(816) 청력·(817) 청력·(818) 청력·(819) 청력·(820) 청력·(821) 청력·(822) 청력·(823) 청력·(824) 청력·(825) 청력·(826) 청력·(827) 청력·(828) 청력·(829) 청력·(830) 청력·(831) 청력·(832) 청력·(833) 청력·(834) 청력·(835) 청력·(836) 청력·(837) 청력·(838) 청력·(839) 청력·(840) 청력·(841) 청력·(842) 청력·(843) 청력·(844) 청력·(845) 청력·(846) 청력·(847) 청력·(848) 청력·(849) 청력·(850) 청력·(851) 청력·(852) 청력·(853) 청력·(854) 청력·(855) 청력·(856) 청력·(857) 청력·(858) 청력·(859) 청력·(860) 청력·(861) 청력·(862) 청력·(863) 청력·(864) 청력·(865) 청력·(866) 청력·(867) 청력·(868) 청력·(869) 청력·(870) 청력·(871) 청력·(872) 청력·(873) 청력·(874) 청력·(875) 청력·(876) 청력·(877) 청력·(878) 청력·(879) 청력·(880) 청력·(881) 청력·(882) 청력·(883) 청력·(884) 청력·(885) 청력·(886) 청력·(887) 청력·(888) 청력·(889) 청력·(890) 청력·(891) 청력·(892) 청력·(893) 청력·(894) 청력·(895) 청력·(896) 청력·(897) 청력·(898) 청력·(899) 청력·(900) 청력·(901) 청력·(902) 청력·(903) 청력·(904) 청력·(905) 청력·(906) 청력·(907) 청력·(908) 청력·(909) 청력·(910) 청력·(911) 청력·(912) 청력·(913) 청력·(914) 청력·(915) 청력·(916) 청력·(917) 청력·(918) 청력·(919) 청력·(920) 청력·(921) 청력·(922) 청력·(923) 청력·(924) 청력·(925) 청력·(926) 청력·(927) 청력·(928) 청력·(929) 청력·(930) 청력·(931) 청력·(932) 청력·(933) 청력·(934) 청력·(935) 청력·(936) 청력·(937) 청력·(938) 청력·(939) 청력·(940) 청력·(941) 청력·(942) 청력·(943) 청력·(944) 청력·(945) 청력·(946) 청력·(947) 청력·(948) 청력·(949) 청력·(950) 청력·(951) 청력·(952) 청력·(953) 청력·(954) 청력·(955) 청력·(956) 청력·(957) 청력·(958) 청력·(959) 청력·(960) 청력·(961) 청력·(962) 청력·(963) 청력·(964) 청력·(965) 청력·(966) 청력·(967) 청력·(968) 청력·(969) 청력·(970) 청력·(971) 청력·(972) 청력·(973) 청력·(974) 청력·(975) 청력·(976) 청력·(977) 청력·(978) 청력·(979) 청력·(980) 청력·(981) 청력·(982) 청력·(983) 청력·(984) 청력·(985) 청력·(986) 청력·(987) 청력·(988) 청력·(989) 청력·(990) 청력·(991) 청력·(992) 청력·(993) 청력·(994) 청력·(995) 청력·(996) 청력·(997) 청력·(998) 청력·(999) 청력·(1000) 청력·(1001) 청력·(1002) 청력·(1003) 청력·(1004) 청력·(1005) 청력·(1006) 청력·(1007) 청력·(1008) 청력·(1009) 청력·(1010) 청력·(1011) 청력·(1012) 청력·(1013) 청력·(1014) 청력·(1015) 청력·(1016) 청력·(1017) 청력·(1018) 청력·(1019) 청력·(1020) 청력·(1021) 청력·(1022) 청력·(1023) 청력·(1024) 청력·(1025) 청력·(1026) 청력·(1027) 청력·(1028) 청력·(1029) 청력·(1030) 청력·(1031) 청력·(1032) 청력·(1033) 청력·(1034) 청력·(1035) 청력·(1036) 청력·(1037) 청력·(1038) 청력·(1039) 청력·(1040) 청력·(1041) 청력·(1042) 청력·(1043) 청력·(1044) 청력·(1045) 청력·(1046) 청력·(1047) 청력·(1048) 청력·(1049) 청력·(1050) 청력·(1051) 청력·(1052) 청력·(1053) 청력·(1054) 청력·(1055) 청력·(1056) 청력·(1057) 청력·(1058) 청력·(1059) 청력·(1060) 청력·(1061) 청력·(1062) 청력·(1063) 청력·(1064) 청력·(1065) 청력·(1066) 청력·(1067) 청력·(1068) 청력·(1069) 청력·(1070) 청력·(1071) 청력·(1072) 청력·(1073) 청력·(1074) 청력·(1075) 청력·(1076) 청력·(1077) 청력·(1078) 청력·(1079) 청력·(1080) 청력·(1081) 청력·(1082) 청력·(1083) 청력·(1084) 청력·(1085) 청력·(1086) 청력·(1087) 청력·(1088) 청력·(1089) 청력·(1090) 청력·(1091) 청력·(1092) 청력·(1093) 청력·(1094) 청력·(1095) 청력·(1096) 청력·(1097) 청력·(1098) 청력·(1099) 청력·(1100) 청력·(1101) 청력·(1102) 청력·(1103) 청력·(1104) 청력·(1105) 청력·(1106) 청력·(1107) 청력·(1108) 청력·(1109) 청력·(1110) 청력·(1111) 청력·(1112) 청력·(1113) 청력·(1114) 청력·(1115) 청력·(1116) 청력·(1117) 청력·(1118) 청력·(1119) 청력·(1120) 청력·(1121) 청력·(1122) 청력·(1123) 청력·(1124) 청력·(1125) 청력·(1126) 청력·(1127) 청력·(1128) 청력·(1129) 청력·(1130) 청력·(1131) 청력·(1132) 청력·(1133) 청력·(1134) 청력·(1135) 청력·(1136) 청력·(1137) 청력·(1138) 청력·(1139) 청력·(1140) 청력·(1141) 청력·(1142) 청력·(1143) 청력·(1144) 청력·(1145) 청력·(1146) 청력·(1147) 청력·(1148) 청력·(1149) 청력·(1150) 청력·(1151) 청력·(1152) 청력·(1153) 청력·(1154) 청력·(1155) 청력·(1156) 청력·(1157) 청력·(1158) 청력·(1159) 청력·(1160) 청력·(1161) 청력·(1162) 청력·(1163) 청력·(1164) 청력·(1165) 청력·(1166) 청력·(1167) 청력·(1168) 청력·(1169) 청력·(1170) 청력·(1171) 청력·(1172) 청력·(1173) 청력·(1174) 청력·(1175) 청력·(1176) 청력·(1177) 청력·(1178) 청력·(1179) 청력·(1180) 청력·(1181) 청력·(1182) 청력·(1183) 청력·(1184) 청력·(1185) 청력·(1186) 청력·(1187) 청력·(1188) 청력·(1189) 청력·(1190) 청력·(1191) 청력·(1192) 청력·(1193) 청력·(1194) 청력·(1195) 청력·(1196) 청력·(1197) 청력·(1198) 청력·(1199) 청력·(1200) 청력·(1201) 청력·(1202) 청력·(1203) 청력·(1204) 청력·(1205) 청력·(1206) 청력·(1207) 청력·(1208) 청력·(1209) 청력·

미국 7개 지역 한국학교협의회 공동연수 및 학술대회 성황리에 마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자랑스러운 세계 리더를 키우는 한국학교”를 주제로 열린 ‘미국 7개 지역 한국학교협의회 공동연수 및 학술대회’가 8월 9일 오전 9시 50분부터 비대면으로 미 전역 23개 주 소속 약 35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연수회는 뉴잉글랜드에서 캘리포니아와 하와이까지 7개 지역협의회가 공동으로 준비했으며, 사전 등록과 강의 신청이 원활하게 이뤄져 참가자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강의에 열정적으로 임했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뉴잉글랜드, 누리, 푸르피, 보스톤중앙교회, 보스턴장로교회, 메인, 애머스트, 내슈아한마음 등 7개 학교가 참가했다. 애머스트 한국학교의 강민희·이주미 교사가 10년 근속상을 받았으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개교 50주년 표창을 수상했다.

1부 순서에서는 남일 회장(뉴잉글랜드 한국학교협의회)의 환영사, 강용진 교장의 축사, 장기근속 교사와 개교 20주년 이상 학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기조강연은 고은경 교수(미국 내셔널 루이스 대학교)가 ‘Reclaiming Roots, Reframing Justice: Lessons from Korean

《전체 기사 읽기》 American History and Immigrant Solidarity’를 주제로, 미주 한인 이주의 역사와 그 가치, 그리고 한국학교에서 후세대 정체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15개의 개별 강의에는 AI 관련 주제, 교수법, 교육과정 설계, 한국어 수업 디자인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는 장은아 교사가 ‘작은 손, 큰 배움-기초 과정 한국어 수업 디자인 & Canva 활용 팁’, 홍순주 교사가 ‘이중언어 수업 설계와 실행-언어, 문화, 사고를 함께 가르치기’, 이보람 교사가 ‘수업이 달라지는 1도 변화-바로 쓰는 교수법’으로 강의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참가 교사들은 이번 연수가 언어학적 접근뿐 아니라 최신 교육환경에 맞춘 AI 활용, 학교 운영, 교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 내용으로 구성돼 9월 새 학년도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폐회식에서 오준석 교장(현 이사)은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한국학교의 교육적 본질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다짐을 통해 순수한 교육적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자”고 강조했다. 시상식에서는 교사



이보람 교사 강의 모습

들의 수업 내용을 겨루는 ‘한국어 학습활동 경시대회’ 최우수상에 송미영 교사(북가주협의회 새누리 한국학교), 우수상에 장은아 교사(뉴잉글랜드협의회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와 방승연 교사(북가주협의회 새누리 한국학교)가 선정됐다. ‘차세대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는 이수진 학생(중서부협의회)이 대상, 이준호 학생(뉴잉글랜드협의회)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7개 한국학교협의회 연합 공동연수와 학술대회는 ‘한국학교의

교사와 학생들만 보고 간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행사”였다. 한 관계자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와 분구 상태에서도 각 지역협의회 협회장들이 한국학교의 가치를 잃지 않고 가려는 의지를 다져 헌신해 이루어낸 행사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 행사보다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어 학습활동 수업경시 대회 수상자 명단
최우수: 송미영 교사, 북가주협의회 새누리 한국학교

우수: 장은아 교사, 뉴잉글랜드협의회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우수: 방승연 교사, 북가주협의회 새누리 한국학교
차세대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수상자 명단
대상: 이수진 학생, 중서부협의회
최우수: 이준호 학생, 뉴잉글랜드협의회
우수상: 이은주 학생, 남서부협의회
박지민 학생, 미시간협의회
신리아 학생, 북가주협의회
황서준 학생, 중남부협의회

JUNG KWAN JANG

정관장에서 만든 믿을 수 있는 공진단
정관장 “황진단”

Korean Red Ginseng Powder	1,360 mg
Korean Red Ginseng Extract	80 mg
Phellinus Linteus Extract Powder	120 mg
Deer Antler Extract Powder	120 mg
Korean Angelica Extract	120 mg
Cornus Officinalis Powder	120 mg

정관장 황진단은 홍삼종 상위 2%로 선별된 지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녹용, 철당귀, 산수유, 상항버섯 등 귀한 부원료를 조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무더운 여름 지치고 무기력한 몸이 활력을 주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MART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781-238-0303 전화주문 서비스
별첨된 고객센터 권역권 위치 \$150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매사추세츠, 젊은층 내집 마련 힘들어... 전국 최고 수준

캘리포니아, 뉴욕, 하와이에 이어 내번째로 힘들어

〈보스턴=보스턴코리아〉한새벽 기자 = 한때 매사추세츠에서는 34세 이하 젊은이들의 내집 장만이 과거보다 훨씬 적어졌으며 다른 주들과 비교했을 때도 과도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센서스국 자료를 보스턴 글로브가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매사추세츠의 25세~34세 주택 소유율은 약 34%로 전국 평균(41%)보다 크게 낮았다. 이는 50개 주 가운데 네 번째로 낮은 수치로, 캘리포니아(28% 미만), 뉴욕, 하와이만이 더 낮았다.

매사추세츠의 젊은층 주택 소유율은 197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왔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하락폭이 커졌고, 이후 완전한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팬데믹 시기 저금리로 잠시 반등했으나, 최근에는 특히 보스턴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급등이 소유율을 더 끌어내렸다. 올여름 그레이터 보스턴 지역의 주택 중위 가격은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

보스턴의 25세~34세 주택 소유율은 18%에 불과했으며, 케임브리지(8%)와 브루클라인(12%)은 더욱 낮았다. 반면, 주 중부와 서부의 일부 소도시에서는 훨씬 높은 소유율을 보였다.

말보로에서 테크 세일즈 일을 하는 30세 제이미 이와니키 씨는 가격에 밀려, 직장에서 한 시간 떨어진 웨

〈전체 기사 읽기〉

스트브룩필드에 집을 구입했다. 이 지역 젊은층의 주택 소유율은 7%에 달한다. 그는 “출퇴근이 힘들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로, 워터타운 출신 해리슨 포드 씨는 MIT에서 재무 담당관으로 일하며 돈을 모으고 있지만, 고향에서 집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고인이 된 삼촌의 2가구 주택에서 작은 스튜디오를 임대해 살고 있다. “이 동네에서 자란 것이 자랑스럽지만, 동시에 내가 자란 동네에서 비싼 가격에 밀려나고 있다” 며 “새로 지어진 집은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저소득층 전용이어서 나오는 거리가 멀다” 고 덧붙였다.

주정부, <HIP> 확대 재개...저소득층 신선식품 구매 지원 강화

〈보스턴=보스턴코리아〉한새벽

〈전체 기사 읽기〉

기자 =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건강 인센티브 프로그램(HIP)’의 가구 규모별 혜택 구조를 오는 9월 1일부터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HIP는 저소득층의 푸드스탬프(SNAP) 수혜 가구가 참여 농장에서 과일 및 채소를 구매할 경우, 월별 한도 내에서 주정부가 EBT 카드에 추가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초 예산 제약으로 인해 가구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액을 지급했으나, 이번 조치로 가구 규모별 월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1~2인 가구: 월 40달러
3~5인 가구: 월 60달러
6인 이상 가구: 월 80달러

현재 HIP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이며, 3분의 1은 장애가 있다고 응답했고, 4분의 1은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다. 이번 복원은 주 의회가 통과시킨 750만 달러 예산으로 재원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제프 맥큐 매사추세츠 전환지원부(DTA) 장관은 “2017년 이후 HIP를 통해 250개 이상의 주 내 농가에서 8,500만 달러 이상의 신선 농산물이 판매됐다” 며 “팬데믹 기간 중 식품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장기적인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 고 말했다.

HIP는 전환지원국과 농업지원부(MDAR)가 주 예산으로 운영하는 연중 상시 프로그램으로, 소규모 지역 농가의 재배 계획과 수익 안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힐리-드리스콜 행정부는 HIP 외에도 SNAP, WIC, 푸드뱅크 지원 등 다양한 식량안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주 전역 기아방지 태스크포스’ 를 신설해 연방정부의 식량 지원 축소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기아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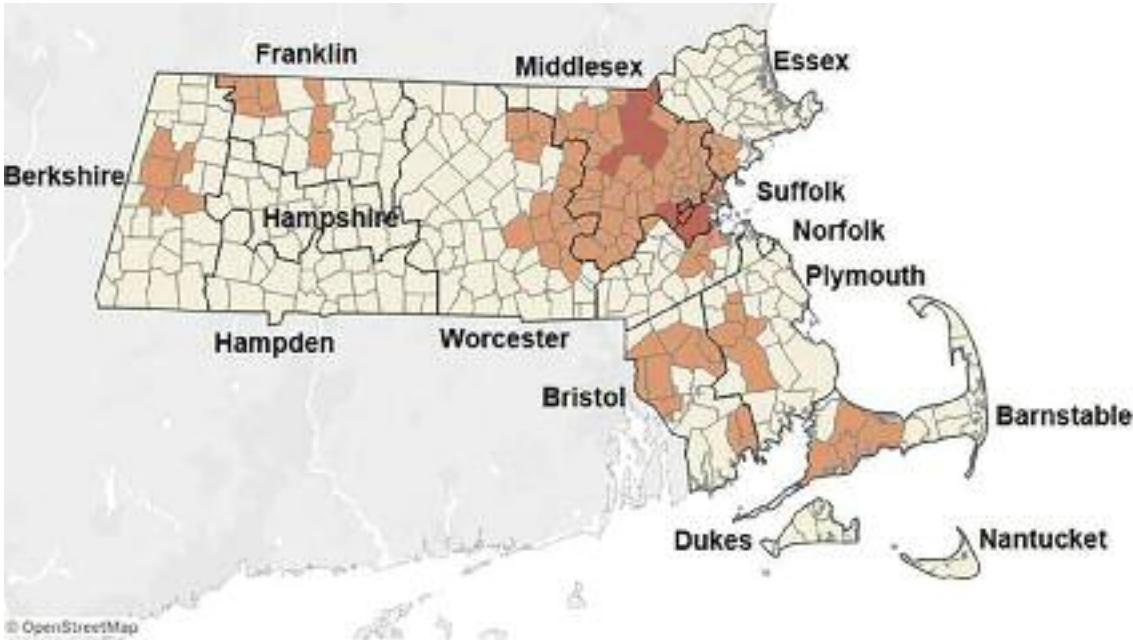
hsb@bostonkorea.com



LET'S GET REAL
ABOUT GAMBLING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매사추세츠 보건 당국,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위험 수준 변경 발표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공중보건부(DPH)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WNV) 보유 모기 샘플이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여러 지역의 바이러스 감염 위험 수준을 ‘높음’ (high)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험 수준이 상향된 지역은 액턴(Acton), 베드퍼드(Bedford), 빌러리카(Billerica), 보스톤(Boston), 브루클라인(Brookline), 칼라일(Carlisle), 첼름스퍼드(Chelmsford), 드레이크컷(Dracut), 로웰(Lowell), 뉴턴(Newton)이다.

매사추세츠 주 공중보건 연구소는 올해 처음으로 WNV 양성 모기를 6월 17일 확인했다. 이후 반스터블, 버크셔, 브리스톨, 듀크스, 에섹스, 프랭클린, 햄프턴, 미들섹스, 노퍽, 플리머스, 서팩, 우스터 카운티에서 총 168건의 WNV 양성 모기 샘플이 발견됐다. 또한 올해 루넬버그에

서 염소 1마리가 WNV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매사추세츠에서 인체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WNV 외에도 동부말뇌염(EEE) 바이러스가 올해 모기에서 검출됐다. 햄프셔 카운티의 벨처타운, 그랜비, 펄햄, 웨어는 현재 EEE ‘보통 위험’ (moderate risk) 지역이다. 브리스톨 및 플리머스 카운티 내 전통적으로 EEE 발생률이 높은 12개 시·타운 — 브리지워터, 카버, 이스트 브리지워터, 이스턴, 할리팩스, 헨슨, 레이크빌, 미들버러, 플립턴, 레이넬, 토턴, 웨스트 브리지워터 — 역시 ‘보통 위험’으로 지정됐다. 올해까지 EEE 양성 모기 샘플은 7건이며 인체 감염 사례와 동물 감염 사례는 없다.

로비 골드스타인 매사추세츠 공중보건국장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와 동부말뇌염 모두 주민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며 “더운 날씨

〈전체 기사 읽기〉

와 습한 기후는 모기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야외 활동 시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하며, 모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를 유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WNV와 EEE는 주로 감염된 모기에 물려 사람에게 전염된다. 2024년 매사추세츠에서는 WNV 인체 감염 사례가 19건 보고됐으며, 동물 감염은 없었다. 같은 해 EEE 인체 감염 사례는 4건으로 이 중 1명이 사망했으며, 동물 감염 사례는 3건이었다.

주역학자 캐서린 M. 브라운은 “최근 몇 주간 WNV 양성 모기 발견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며 “지금 이 시기이므로 주민들이 반드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스톤 바 재단, 알리 누라니 신임 회장 선임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의 대표적 민간 자선단체인 바 재단(Barr Foundation)이 전국적인 인선 과정을 거쳐 알리 누라니를 신임 회장으로 임명했다. 누라니는 2025년 12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며, 11년 넘게 재단을 이끌어 온 짐 카날레스 회장의 뒤를 잇는다.

누라니는 최근 캘리포니아 멘로파크에 본사를 둔 민간 재단 ‘윌리엄 앤 플로라 휴렛 재단(William and Flora Hewlett Foundation)’에서 미국 민주주의 프로그램 국장으로 재직했다. 휴렛 재단은 약 14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대규모 재단이다.

〈전체 기사 읽기〉

만 달러를 기부했다. 직원 수는 10여 년 전 19명에서 현재 약 50명으로 늘었다.

누라니는 워싱턴 D.C.에서 전국 이민포럼(National Immigration Forum) 회장 겸 CEO로 활동한 뒤 휴렛 재단에 합류했으며, 이민 문제 관련 저서 두 권을 집필했다. 그 이전에는 매사추세츠 이민·난민 옹호 연합(MIRA) 사무총장, 코드맨 스캐어 헬스센터 및 도체스터 하우스 다목적 센터의 공중보건국장, 보스톤시 환경부의 ‘그레이터 보스톤 도시자원 파트너십’ 책임자 등을 역임했다. 그는 보스톤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석사 출신이다.

한편, 카날레스 현 회장은 2026년 초부터 바바라 호스테터 현 이사를 대신해 재단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호스테터 가족의 투자사인 파일럿 하우스 어소시에이츠(Pilot House Associates)에서 전일제로 근무할 예정이다. 카날레스와 호스테터 모두 재단의 이사는 유지한다.

그는 성명에서 “깊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맡게 됐다”며 “지역사회와의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과 투자라는 바 재단의 가치 위에서 그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바 재단은 교육과 예술 분야에서 지역사회 지원을 활발히 펼쳐 왔으며, 2024년 한 해에만 1억 3천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미국인 음주에 대한 태도 변화... 젊은 층은 술 안 마셔

미국인 절반 이상 “적당한 음주도 건강에 해롭다” ...갤럽 조사서 역대 최고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미국인들이 술에 대해 갖는 인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13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가운데 53%가 ‘하루 한두잔’ 수준의 적당한 음주도 건강에 해롭다고 답했다. 이는 2015년의 28%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갤럽 조사 역사상 최고치다.

이번 인식 변화는 특히 젊은 층에서 두드러진다. 18~34세 연령층의 약 3분의 2가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고 답했으며, 2015년 당시 10명 중 4명 수준에서 크게 증가했다. 다만 55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비슷한 인식 변화가 나타나, 절반가량이 적당한 음주도 해롭다고 답했다. 2015년에는 이 비율이 20%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심혈관 건강에 이롭다는 등의 연구가 있었지만,

젊은 층이 포함되지 않거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불완전한 결과였다고 지적한다. 최근에는 알코올이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축적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가 권장 섭취량을 낮추고 있다. 미국의 바벳 머시전 공중보건국장은 올해 초 맥주·와인·증류주 병에 ‘음주와 암의 연관성’을 명확히 표기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 술을 마신다고 답한 미국 성인은 54%로, 지난 30년간 최저치다. 특히 여성과 젊은 층에서 음주율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젊은 층이 가장 높은 음주율을 보였지만, 이제는 중·장년층보다 낮아졌다. 갤럽 조사에서 미국인의 음주율이 60% 밑으로 내려간 것은 역사적으로 몇 차례뿐이다.

(전체 기사 읽기) 또한 술을 마시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음주 빈도가 줄고 있다. 적당한 음주가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지난주에 술을 마셨다’고 답한 비율이 낮았다. 전체적으로 ‘지난 24시간 내 음주했다’는 응답은 조사 역사상 최저인 약 4분의 1에 그쳤으며, 10명 중 4명은 ‘마지막 음주가 일주일 이상 전’이라고 답했다.

미 보건부는 올해 말 새로운 식이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은 “큰 변화”를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현재 지침은 남성은 하루 2잔 이하, 여성은 하루 1잔 이하로 음주를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아마존, 신선식품 당일 배송 서비스 확대... 보스톤은 아직

전통 식료품점 압박, 연말까지 2300개 도시 및 타운으로 확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아마존이 블루베리와 우유 같은 신선식품을 건전지·티셔츠 등 일반 상품과 함께 주문해 몇 시간 안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마존은 13일 프라임(Prime) 회원이 25달러 이상 주문 시 무료 당일 배송으로 신선식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1,000개 이상의 도시와 타운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지역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랠리, 위스콘신주 밀워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등이 포함됐으나 보스톤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말까지 2,300개 도시와 타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마존은 이번 조치를 “가장 중요한 식료품 서비스 확장 중 하나”라고 설명하며, 수천 종의 신선식품을 기존 물류망에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월마트, 크로거, 타깃 등 경쟁사의 식료품 배송 서비스에 상당한 압박이 예상된다.

주문 금액이 25달러 미만인 경우 프라임 회원은 2.99달러에 당일 배송을 이용할 수 있으며, 비회원은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12.99달러에 이용 가능하다. 프라임 회원권은 월 14.99달러 또는 연 139달러이며, 무제한 프라임 비디오 스트리밍, 훌루드·아마존 프레스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한다.

아마존 월드와이드 스토어스 CEO 더그 헤링턴은 “프라임 회원을 중심으로 식료품 쇼핑을 더 간단하고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고 있다”며 “신선식품을 당일 배송 서비

(전체 기사 읽기)

스에 포함해 한번의 장바구니 결제로 전자제품, 과일, 냉동 피자, 공구까지 몇 시간 내 집 앞에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처음 시험 운영됐으며, 올해 초 플로리다주 올랜도와 미주리주 캔자스시티로 확대됐다. 아마존은 해당 서비스 이용 고객 중 상당수가 아마존에서 처음 식료품을 구입한 소비자였으며, 이후 구매 빈도가 2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판매 상위 품목에는 딸기, 바나나, 허니 크리스프 사과, 라임, 아보카도가 포함되며, 딸기는 종종 에어팟을 제치고 전체 베스트셀러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퍼블리시스 그룹의 제이슨 골드버그 최고상거래 전략 책임자는 “아마존이 신선식품 분야에서 성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번 변화는 소비자 경험을 크게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마존은 지난해 훌루드와 아마존 프레스 매출을 제외하고도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의 총매출을 올렸다. 또 오는 2026년까지 40억 달러를 투자해 배송망을 3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특히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회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지역별 소비자 선호를 예측하고, 인기 품목과 지역 특화 상품을 함께 재고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sb@bostonkorea.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크라운
- 임플란트
- 잇몸 치료
- Invisalign
- Sleep Apnea

보험

- Delta Dental Premier
- Blue Cross Blue Shield
-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좋은 치과, 좋은 치아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 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 MA, 15777



중고차 가격 상승, 새 차보다 더 빨라... 30,000달러 재돌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중고차를 저렴하게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이어진 공급 부족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로, 중고차 가격 상승률이 새 차를 앞지르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미 노동부가 12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중고차·트럭 가격은 전달보다 0.5% 올랐고,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새 차 가격은 전달 대비 변동이 없었고, 1년 전보다 0.4%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전년 대비 2.7% 오른 전체 CPI 상승률을 크게 웃돈다.

에드먼즈(Edmunds)에 따르면, 올해 초 3년 된 중고차 평균 가격이 다시 3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현재는 2022년 팬데믹 시기의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 에드먼즈 인사이트 디렉터 아이번 드루리(Ivan Drury)는 “가격 충격은 현실이지만 시각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평소 새 차만 고려하던 소비자라면 일부 고급차에서 특히 매력적인 구매 조건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차(EV) 중고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콕스 오토모티브(Cox Automotive)에 따르면, 올해 중고 전기차 판매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올해와 내년에 더 다양한 모델이 시장에 풀릴 전망이다.

팬데믹 당시 신차 공급 부족은 오늘날 중고차 재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리스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직접 매입

〈전체 기사 읽기〉

하면서 중고차 공급은 더욱 줄었다.

전문가들은 상황이 단기간에 나아질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현재까지 자동차 제조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신차 가격 인상을 피하고 있지만, 막대한 비용을 계속 흡수하기는 어렵다. 2026년형 신차부터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이 예상되며, 이 경우 중고차 수요가 더 늘어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콕스 오토모티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나단 스모크는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 모두 오르면 올해 자동차 시장 전체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의 고민, 텅 빈 바이오 랩 어떻게 할 것인가

▶▶1면에 이어서

만, 부동산 중개·리서치 업체 뉴마크(Newmark)에 따르면 현재 공실률은 36%로 사상 최고치다. 오피스 공실률은 22%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빈 건물들이 들어선 부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는 땅이었다. 하지만 랩 개발업자들이 주거 개발업자보다 더 높은 오피스를 제시했으며 상업세율을 늘리려는 지방정부와 투자자들도 바이오 랩을 선호했다. 문제는 이제 이 건물들을 다른 용도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바이오랩, 일반 오피스 및 주거 빌딩 전환 어려워

바이오 랩 건물은 복잡한 기계·환기 설비가 필수라 일반 사무실이나 주거용 건물보다 건축비가 훨씬 높다. 사사키(Sasaki) 디자인사의 리시 난디는 바이오 랩 건축비가 평방피트당 1,200달러로, 사무실보다 최소 50% 비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오 랩 임대료는 사무실 평균 50달러보다 훨씬 높은 85달러 수준을 유지해야 투자 수익이 맞춰진다.

현재 대부분의 공실 빌딩은 ‘코어 앤 셸’ 단계로, 기본 구조와 설비는 완성됐지만 세부 임차인 맞춤 작업은 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HVAC, 냉각탑, 고급 환기 장치 등 수백만 달러 규모의 특수 설비가 이미 설치돼 있다.

바이오 랩 건물은 일반 건물보다 3배 많은 기계 장비를 갖추며, 공기 재순환 대신 외부 공기를 지속적으로 가열·냉각·제습해 내부로 들여보낸다. 높은 층고와 대형 덕트로 인해 동

일한 높이의 아파트보다 임대 가능한 층수가 줄어 수익성이 떨어진다.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배치도 주거·산업용 건물과 달라 전환 비용과 설계 변경이 필연적이다.

대부분 시장회복 대기 선택

대부분의 소유주는 시장 회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일부는 보스톤 중심부에서는 의료·오피스 용도로, 외곽에서는 ‘터프 테크’ 나 첨단 제조업에 임대하려고 시도 중이다. 보스톤 프로퍼티스(BXP)는 2021년 착공한 왓슨 시티포인트의 바이오 랩 빌딩을 바이오 랩이 아닌 사무공간 임차인과 계약하기도 했다.

아직 착공 전인 프로젝트는 용도 변경 시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주거 용으로 전환할 경우 수년간의 인허가 과정과 설계·법률·공학 비용이 뒤따른다. 그럼에도 니덤의 불핀치사는 승인받은 바이오 랩 개발을 주거·호텔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머빌은 2020년 이후 200만 평방피트의 새 바이오 랩 공간을 확보하며 상업세수 다변화를 꾀했다. 일부는 활발히 운영되지만, 74M 같은 건물은 비어 있다. 시 개발국 톰 갈리가니 국장은 “우리 건물들은 모두 새로 지어 에너지 효율이 높아 장기적으로 임차인을 확보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개발사 그레이스타의 매트 디노블은 “역지로 맞지 않는 용도를 들이는 것보다 적합한 임차인을 기다리는 게 낫다”며, “이미 입주를 타진하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5 본당의 날

2025. 9. 21(주일)

대성전/본당 마당

11:00 본당의 날 기념 미사
Cristiano Carbone 주교 - 주교
보좌 주교 이사 집전

12:30 식사 나눔 (성모초)

1:30 본당 화합 레크리에이션

본당의 날에는
오전 9시 30분 경에 미사가 있습니다.
양복 부탁드립니다.

성당 주소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 558-2711

가톨릭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여배신자 교리반 식별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및 장소 9월 28일(주일) 오후 1시, 보스톤 한인성당 사제관

본당 홈페이지 참조 www.bostonkoreancatholic.com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튼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토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톤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관과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catholi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에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매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련

AI사상 최대 부 창출...기록적 속도 신형 억만장자 탄생

세계 AI 유니콘은 현재 498개, 1억달러 이상 스타트업은 1,300여개
신형 AI 부호의 재산 상당수는 비상장 주식 형태로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인공지능(AI) 산업이 붐을 타고 새로운 억만장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앤스로픽(Anthropic), 세이프 슈퍼인텔리전스(Safe Superintelligence), 오픈 AI(OpenAI), 애니스피어(Any-sphere) 등 AI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부호들을 낳고 있다고 CNBC가 보도

했다.

시장조사업체 CB 인사이츠에 따르면 전 세계 AI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사)은 현재 498개로, 총 기업가치는 2조7천억 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0곳은 2023년 이후 설립됐다. 기업가치 1억달러 이상인 AI 스타트업은 1,300개가 넘는다.

MIT의 앤드류 맥아피 수석연구원은 “지난 100여 년의 데이터를

봐도 이 정도 규모와 속도의 부 창출은 전례가 없다” 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3월 기준, 주요 AI비상장 기업 4곳이 최소 15명의 억만장자를 만들어냈으며, 이들의 총 자산 가치는 38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그 후로도 유니콘 기업은 계속 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9월 오픈AI를 떠난 미라 무라티 전 CTO는 올해 2월 ‘싱킹 머신스 랩(Thinking Machines Lab)’을 설립하고 7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드 투자(20억 달러)를 유치해 기업

〈전체 기사 읽기〉

가치 120억 달러를 인정받았다. 앤스로픽은 현재 1,700억 달러 가치 평가를 목표로 50억 달러 투자 유치를 논의 중이며, 애니스피어는 6월 투자 라운드에서 99억 달러 가치를 인정받은 지 몇 주 만에 180~200억 달러 가치 제안을 받았다.

다만 이들 신형 AI 부호의 재산 상당수는 비상장 주식 형태로 묶여 있어 현금화가 쉽지 않다. 과거 닷컴 버블 시기와 달리, 오늘날 AI 기업들은 벤처캐피털, 국부펀드, 패밀리오피스 등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받아 장기간 비상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대신 비상장 주식을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2차 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며, 창업자와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부분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메타가 스케일 AI(Scale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한 뒤, 공동창업자 알렉산더 왕은 메타 AI팀에 합류했고, 2018년 회사를 떠난 공동창업자 루시 구오는 LA 할리우드 힐스에 3천만 달러 규모의 저택을 매입했다. CB 인사이츠에 따르면 2023년 이후 AI 기업 인수·합병, IPO 등 유동성 이벤트는 73건에 달했다.

AI 부의 중심지는 단연 실리콘 밸리다. 실리콘밸리 지역 기업들은 지난해 벤처 투자금 350억 달러 이상을 유치했고, 샌프란시스코의

억만장자 수(82명)는 뉴욕(66명)을 앞질렀다. 고급 부동산 거래도 급증해,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2천만 달러 이상에 거래된 주택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과 몇 년 전 ‘둠 루프(doom loop)’ 위기론이 돌았던 도시가 AI 덕에 부동산과 임대료가 다시 치솟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IPO와 유동성 확대를 통해 AI 신형 부호들의 자산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리면서, 자산관리업계에 사상 최대 기회가 열릴 것으로 내다본다. 그러나 대부분의 AI 부는 여전히 비유동성 상태여서 전통 자산관리사가 직접 관리하기 쉽지 않다.

패스톤(Pathstone)의 사이먼 크린스키 전무이사는 “현재 창출되는 부의 상당 비율이 비상장 지분에 묶여 있다” 며 “과거 닷컴 부호들이 결국 자산을 분산하고 전문가에게 관리를 맡겼듯, AI 부호들도 비슷한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그는 또 “AI 창업가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속한 네트워크와 업계에 채투자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통적인 세무, 상속,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의 필요성을 깨닫게 될 것” 이라며 “AI 산업이 결국 자산관리업 자체를 혁신하거나 대체할 잠재력도 크다” 고 덧붙였다.

hsb@bostonkorea.com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보스턴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턴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핸디맨 앤디

HANDYMAN ANDY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젊은 성악인을 위한 한국 가곡 콩쿠르

본선 음악회

8월 16일 (토)
오후 3시

Seully Hall
Boston Conservatory at Berklee
8 Fenway, Boston, MA

본선 연주자



상금 \$4,000
예선에서 선발된 10인 성악가



Amanda Densmoor
SOPRANO



Xingchi Dong
BARITONE



Nathan Lê
TENOR



Anna Low
SOPRANO



Samantha Martin
SOPRANO



Jack Morin
BARITONE



Jeysla Rosario Santos
SOPR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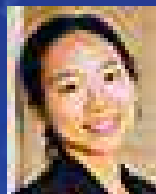
Nan Sun
MEZZO-SOPRANO



Samuel Yoon
BARITONE



Zhe Nancy Xiong
MEZZO-SOPRANO



Eun Kyung Lee
PIANO



등록 후 무료 입장

kcsboston.org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주최
주 보스턴 총영사관 후원



보스턴 여름의 끝자락, 막바지 액티비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무더웠던 보스턴 여름이 지나가면서 학생들은 개학을 준비하고, 직장인들도 퇴근 후나 여유 시간을 활용해 여름의 끝자락을 즐기고 있다. 공원 산책, 야외 공연, 소규모 피크닉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짧지만 소중한 여름의 여유를 만끽하며, 올 여름의 기억을 풍성하게 하고 일상의 활력을 되찾는다.

도시 곳곳에서는 자연과 음악을 함께 즐기는 드론 체험, 조명이 어우러진 산책로, 특색 있는 연극과 문화 체험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이어진다. 평소와는 다른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이색 액티비티들이 특히 주목받으며, 여름의 마지막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햇살은 한층 부드러워지고, 공기에는 선선한 가을 기운이 스며드는 지금, 다양한 야외 활동과 소소한 즐길 거리를 찾아 여름의 끝자락을 만끽해보자.

문위커스: 톰 행크스의 내레이션과 함께하는 360도 몰입형 체험

(The Moonwalkers: A Journey with Tom Hank)

보스턴의 더 소운더스 캐슬(The Saunders Castle)에서 열리고 있는 The Moonwalkers: A Journey with Tom Hanks가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할리우드 배우 톰 행크스의 깊이 있는 내레이션과 함께, 아폴로 미션부터 아르테미스 계획까지 인류의 달 탐사 역사를 360도 몰입형 시각·음향으로 생생하게 재현한다. 이전에 공개된 적 없던 NASA의 화귀 영상과 복원 이미지를 비롯해 최첨단

프로젝션과 웅장한 사운드가 어우러져 관람객을 마치 우주 한가운데에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여기에 우주비행사 인터뷰, 감동적인 역사적 장면, 그리고 우주 탐사의 용기와 경이로움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으며 어린이부터 어른들에게도 진한 감동과 영감을 선사한다. 총 60-75분 동안 진행되는 본 전시는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으며, 조기에매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소운더스 캐슬 내에는 주차장이 없으나, 문위커스 전용 주차 혜택이 사전 예약을 통해 제공되며, 인근 파킹장 LAZ Parking - Motor Mart와 200 Stuart Street Garage, 그리고 스트리트 파킹을 이용할 수 있다.

비용: 성인 \$31.50, 어린이 (5-15세) \$21.50

날짜: 8월 13일-8월 31일 2025년

장소: The Saunders Castle- 130 Columbus Ave, Boston, MA 02116

웹사이트: <https://buly.kr/FhODfTn>
음악과 함께하는 드론아트 쇼 (DronArt Show: A Music and Drone Show)

수백 대의 드론과 라이브 클래식 음악이 어우러지는 야외 공연 DronArt Show가 오는 9월 5일과 6일, 보스턴 하버드 대학교 오히리 필드(Ohiri Field)에서 열린다. 한때 전석 매진을 기록한 이 공연은 해질녘부터 수백 대의 드론이 밤하늘 위로 이륙해 별과 꽃 등 다양한 형상을 그리며, 현악 연주에 맞춰 완벽하게 동기화된 비행을 선보인다.

약 65분간 진행되는 이 특별한 콘서트는 예술과 최첨단 기술이 만나

〈전체 기사 읽기〉

만들어낸 장관으로,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으며 3세 미만 아동은 무료 입장 가능하다. 관람객들은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개방되는 현장에서 노을과 함께 푸드 부스를 즐기며 공연을 기다릴 수 있으며, 티켓은 매진 전에 사전 예매하는 것이 좋다.

장소: Ohiri Field, 하버드 대학교 - 95 N Harvard St, Boston, MA 02134

날짜: 9월 5일, 6일 2025년 (단이틀간)

시간: 오후 8시 (주차장은 오후 6시 개방)

웹사이트: <https://buly.kr/ESyungM>
보스턴 라이트
(Boston Lights: A Lantern Experience)

보스턴 프랭클린 파크 동물원에서 열리는 Boston Lights가 올해도 관람객들을 환상적인 빛의 세계로 초대한다. 올해 전시는 세계 각지의 자연 서식지에서 영감을 받아 산악 고원, 열대우림 캐노피, 해저 산호초 등을 재현했으며, 신비로운 빛의 숲을 중심으로 꽃을 테마로 한 터널과 신화 속 동물 디자인, 높이 22피트가 넘는 거대한 빛나는 올빼미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관람객들은 인터랙티브 전시와 사진 찍기 좋은 포토 스팟도 다양하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오면 4인 패키지 티켓으로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튀긴 도우, 초콜릿 마시멜로, 소고기·치킨 엠파나다 등 다양한 간식을 즐길 수 있으며, 레모네이드, 사과



주스, 맥주와 와인 등 음료도 마련된다. 이번 전시의 모든 랜턴은 에너지 절약 LED를 사용하며, Tianyu Arts & Culture, Inc.와 협력해 장인정신으로 제작되었다. 방문객들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지구 생물 다양성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환경의 중요성도 배울 수 있다.

날짜: 8월 1일-11월 2일

비용: \$29.95 (EBT 및 WIC 카드 소지자는 \$17의 할인된 가격)

장소: Franklin Park Zoo-1 Franklin Park Rd, Boston, MA 02121

웹사이트: <https://buly.kr/9MQwMfb>

배심원 체험 연극: 비밀, 거짓, 그리고 피의 돈

(The JURY Experience: Secrets, Lies, and Blood Money)

개학을 앞두고 평소와는 다른 짜릿한 경험을 찾는다면, 보스턴 칼더우드 파빌리온에서 열리는 The Jury Experience: Scandal in Suite 209가 제격이다. 관객이 직접 배심원이 되어 2천만 달러짜리 목걸이 절도 사건

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이 몰입형 법정 드라마는 증인 진술 분석부터 증거 검토까지 실제 재판과 같은 긴장감을 선사한다. 각자의 선택이 이야기 전개를 바꾸는 만큼,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60분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단순히 보는 연극이 아니라, 참여와 판단을 통해 이야기를 완성하는 독특한 무대다.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와 현장감 있는 연출 속에서, 관객은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해 끝없이 고민하고 토론하게 된다. 개학 전, 친구나 가족과 함께 법정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는 이 특별한 체험은 최고의 색다른 추억이 될 것이다.

장소: 칼더우드 파빌리온 (Calderwood Pavilion)- 527 Tremont St, Boston, MA 02116

참여방법: QR 코드를 스캔해 공연 중 주요 순간에 참여 가능 (각 사건은 독립적인 이야기로, 개별적으로 즐기기 가능)

비용: \$30-\$60
웹사이트: <https://buly.kr/NkIKkH>

보스톤의 한글교육, 보스톤한국학교가 책임집니다!

- ☑ 교재가 확실하다!
- ☑ 교사진이 확실하다!
- ☑ 한국문화가 확실하다!

첫째,	뉴잉글랜드 유일의 단계별 학습교재 사용!
둘째,	교사 경험 3년 이상의 교사 유치!
셋째,	붓글씨, K-POP, 전통놀이, 한국요리 체험학습!

결론은 보스톤 한국학교입니다!

4 years old - 8th grader
BKS 등록금 안내
Tuition: Half Year (15+1/2 Saturdays)
Regular Classes:
\$350 (one child)
\$665 (two children)
\$940 (three children)
등록마감: Sep 5, 2025
개학날: SEP 13, 2025
준비물: 필기도구, 3Ring 바인더, 물병, 스낵

37년 전통의 보스톤 한국학교에서 2025-2026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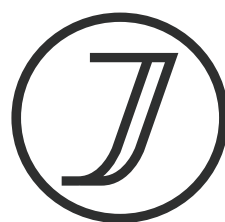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연락처 | 강상철 교장 Email: uno@sangkang.com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4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2024, 2025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2025)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 2025년 **Boston Magazine** 선정 '최고의 에이전트'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Real Trends Verified 2024, 2025**)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COMPASS

Jason Jeon is a real estate broker affiliated with Compas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Source: MLSPin total sales 2023

연준에 쏠린 눈...시장은 9월 인하 기정사실화

미 재무 베센트 장관 "9월 빅컷" 압박...연준 내 신중론도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오는 9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재개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커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투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9월에 기준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93.7%로 반영하고 있다. 50bp 인하(빅컷) 확률도 이날 새로 나왔다. 확률은 6.3%다. 빅컷 전망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달 2일 고용 지표가 대폭 하향 조정된 데 이어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9월 빅컷을 언급하며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했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9월부터 50bp 인하를 시작으로 일련의 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며 "어떤 모델을 보더라도 아마도 150~175bp 낮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일 연준 인사들이 최근 수정 발표된 고용 지표를 알았다면 "6월과 7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연준이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으로 4.25~4.50%로 동결한 지 이틀 지난 시점에 미국 노동부는 5

월과 6월의 고용 증가인원을 기준 발표치에서 모두 25만8천명 하향 조정했다.

양호한 것으로 여겨지던 고용 상황이 이미 나빠졌을 것이라는 시장의 평가를 불러일으켰다.

12일 발표된 7월 CPI 지표는 전품목 지수와 근원 지수가 엇갈렸다.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 상승 폭이 6월(0.3%)보다 작아졌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2.7% 올라 6월과 같았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상승해 6월(0.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작년 동기 대비로도 3.1% 올라 6월(2.9%)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에 대해 주식시장은 관세에 따른 물가 충격이 7월까지 크지 않음이 확인되면서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 기대감이 커지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나온 연준 인사들의 공개 발언은 이러한 시장의 기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투표권을 지닌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기자들에게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되돌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하며 매파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해석했다.

굴스비 총재는 "급격히 움직이는 것은 연준이 가장 피해야 할 일"이라



제롬 파월 미연준 의장

며 "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은 중앙은행의 운영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고용 시장은 최근 발표된 7월 수치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 했다.

또한 인플레이션 지표의 일부 세부 내용이 연준의 가격 압력 억제 노력이 더 이상 '황금 경로'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면서 "만약 (높은 서비스 가격 상승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2%로 돌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도 "경제가 여전히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고, 기업들의 낙관적 전망이 증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당분간 적절히 제한적인 통화 정책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정책 입장을 완화하는 기회가 아니라 정책을 유지하는 근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나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처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성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의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좋은사람들
www.huram.co.kr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장사꾼' 트럼프... '엔비디아 중국 매출 15% 납부' 새 모델되나

60개 의료 · 테크기업 정보개방 협약... 삼성 · 구글 · 오픈AI 등 참여..... 프라이버시 침해 등 우려...트럼프 "본인 동의해야 정보 수집"

(서울=연합뉴스) 주중국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에 중국 수출 허가의 대가로 대(對)중국 수출 매출액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도록 합의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수출허가권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방식이 오랜 무역 장벽을 뚫고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 방식이 미국 정부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서, 이를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산업에서도 이런 방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지금 봐서는 이런 방식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제 모델(방식)과 베타 테스트(시범 운영 결과)도 가지고 있으니 왜 이걸 확장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엔비디아 H20 칩의 중국 수출 허가와 관련해 나오는 국

가 안보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국가 안보 우려는 없다. 우리는 첨단 칩을 중국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H20은 첨단 칩에 비해 4, 5, 6 단계 아래에 있는 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적인 평가도 이어졌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게리 허프바우어 선임연구원은 "이는 정말 이상하고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사례가 AMD와 엔비디아를 넘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모든 것이 '국가 안보'로 분류되므로, 수출 허가 대상이 되며, 그 허가는 기업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 방식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의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수년간의 무역 긴장을 우회하는 모델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기업들은 이런 방식이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향후 이 조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기 어렵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새로운 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른바 골드 카드로 불리는 영주권이나 거주 비자 판매를 검토하고 있으며, US 스틸의 사례에서 보듯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golden share)도

확보한 바 있다.

또,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투자 약속과 잠재적 수익 공유 약속을 받아냈다.

존스홉킨스대 고등국제대학원 교수이자 전 국방부 관리인 할 브랜즈

는 블룸버그 오피니언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들은 이런 조치가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과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함으로써 미국의 AI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미국의 혁신 우위를 잠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당신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기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소아우울증을 위한 도움이 내 곁에 |



정신건강 위기 관리 기관,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위기에 처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세요?

가까운 행동건강센터를
찾아보세요.

mass.gov/CBHC



5개국 결혼 · 출산 인식 비교해보니...이유있는 한국의 초저출생

보사연, 한 · 일 · 독 · 프 · 스웨덴 조사...희망 자녀수 한국이 가장 적어
출산시 '미래 불확실성' 등 고려 요인 많아...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한국의 젊은 층이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의 동년배에 비해 자녀 출산 결정에 고려하는 요소들이 많고,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나 기회 제약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 · 가정 양립이 쉽지 않고 사회가 불공정 ·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한국이 가장 높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들 5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성인 2천500명씩을 대상으로 지난해 6~9월 진행한 결혼과 출산 · 육아, 인구정책 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14일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공개했다.

독일과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 비교대상 4개국은 모두 출산율 하락을 겪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이 1명대로, 우리나라의 0.75명보다는 월등히 높다.

동일한 설문지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인식조사에서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의 결혼 의향은 의외로 한국 52.9%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 50.2%, 독일 46.5%, 프랑스 38.2%, 일본 32.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출산 의향은 스웨덴 43.2%, 프랑스 38.8%, 독일 38.6%, 한국 31.2%, 일본 20.3% 순으로 높았다.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해보면 일본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거나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률이 우리보다 높았던

반면, '낯지 않을 생각'이라는 응답률은 한국(47.3%)이 일본(45.9%)보다 높았다.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계획하는 자녀 수는 우리나라가 1.74명으로 가장 적었다. 독일은 2.4명, 스웨덴 2.35명, 프랑스 2.11명 일본 1.9명이었다.

실제로 한국의 첫째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낮은 편이 아니지만, 셋째 이상 출산율은 제일 낮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은 출산 관련 인식에서 찾을 수 있었다.

출산 계획시 고려하는 요인들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 '주거 여건', '경력 단절의 가능성' 등 모든 요인을 다른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출산 결정에 있어서 고민할 요소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인데, 특히 한국인의 절반 이상(50.1%)이 '미래 불확실성'을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웃 일본은 그 비율이 30.5%, 스웨덴은 22.5%에 그쳤다.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한국이 59.9%로, 프랑스(35.6%), 일본(35.0%), 스웨덴(25.2%) 등보다 월등히 높았다.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거나 '나나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24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아기를 돌보고 있다.

고 생각하는 비율도 한국이 가장 높았다.

일과 가사, 육아를 병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문항엔 한국에선 57.6%가 어렵다고 답해 일본(55.8%), 프랑스(47.3%), 스웨덴(23.2%) 등보다 높았다.

사회에 대한 인식도 한국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만점

으로 측정하니 한국은 2.35점에 그쳤다. 독일과 프랑스는 약 2.8점이었다.

반면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라는 데엔 한국인들이 더 많이 동의를 표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인식과 가치관 차이가 각국의 가족 형성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결혼 · 출산 · 육아 인식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일 · 가정 양립 여건, 경력 유지 가능성, 제도의 실효성 등 구체적인 사회적 조건들이 맞물려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향후 인구정책은 이러한 점을 반영해 구조 전반의 전환을 동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mihye@yna.co.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AUG. 15th - AUG. 21st, 2025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KIMCHI CHEESE CROISSANT

An all-day craving and an all-easy recipe, the Kimchi Croissant marries flaky, buttery layers with Korea's spicy, tangy kimchi for a flavorful and addictive bite. 하루 종일 생각나는 간편 레시피, 김치와 바삭한 크로와상의 중독적인 만남! H마트와 함께 맛있게 만들어보세요.



Long Sweet Pepper
롱 스위트 페퍼
12 OZ/PKG
\$1.99

Small Bok Choy Tip
스몰 박초이 팁
LB
\$1.79

DRISCOLL'S Strawberry
드리스콜 딸기
2 LB/PKG
\$6.99

Sweet Corn
찰 옥수수 EA
10\$**7.99**
FOR

White Peach/
Nectarine/
Donut Peach
백도/백천도/
도넛 복숭아
LB
\$2.49

THE LITTLE POTATO
미니감자
YELLOWS/REDS/
TRIOS/DUOS
2\$**4.99**
FOR

Green Plum
그린 자두 LB
\$2.49

Longan
롱간 LB
\$2.99

Chinese Eggplant
중국 가지
LB
\$1.29

Green Onion
파 BUN
5\$**1.99**
FOR

Lychee
리치 LB
\$1.99

Yellow Plum
노란 자두 LB
\$1.99

Washington
Red Cherry 체리
LB
\$4.99

Seedless
Watermelon
씨없는 수박 JUMBO
EA
\$5.99

신 선 한 정 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U.S.D.A. CHOICE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9.99

Fresh Boneless Pork Loin Chops
생 뼈없는 등심 폭찹
LB
\$5.99

Fresh Pork CT Butt
생 돼지목살 (수육용)
CHUNK/LB
\$5.99

Fresh Pork Baby Back Ribs
생 돼지 등갈비
WHOLE PIECE/LB
\$4.99

Fresh Chicken Tenderloin
생 닭안심
LB
\$3.99

Marinated Beef Rib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8.99

싱 싱 한 수 산 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ozen Red Snapper
홍도미 LB
\$8.99

Pre-frozen Cod Fillet
대구 전감 LB
\$7.99

Frozen Tilapia
틸라피아 600-800'S/LB
\$2.99

Headless White Shrimp
흰새우 16-20'S/LB
\$6.99

Frozen Striped Bass
농어 600-800'S/LB
\$5.99

Frozen Pollock Fillet
동태전감 LB
\$2.99

SMART CARD MEMBER ONLY

H MART SMART CARD ONLY

JONGGA Real Kimchi Ramen Cup Noodle Soup
종가집 리얼 김치라면
\$8.99 4.93 OZ X 6 BOWLS/BOX

H MART SMART CARD ONLY

JONGGA Real Kimchi Ramen Cup Noodle Soup
종가집 리얼 김치라면
\$8.99 2.99 OZ X 6 CUPS/BOX

H MART SMART CARD ONLY

ORION Marine Boy Snack
오리온 고래밥
\$8.99 21.16 OZ (15 EA/BOX)

H MART SMART CARD ONLY

ORION Turtle Chips
오리온 꼬북칩
SWEET CORN & CHOCO CHRROS
\$8.99 0.88 OZ X 14 EA/PKG

PALDO Samgyetang Noodles
팔도 삼계탕면
\$4.99 3.53 OZ X 4 EA/PKG

HALLA FOOD Tuna Sauce
한라식품 참치액
30.5 FL OZ
\$9.99

LSD Rice Croquette
이성당 카레 쌀 고로케
\$6.99 CURRY 12.7 OZ

HAIO Frozen Cooked Kimchi Flavored Vegetable Dumpling
해오름 김치순만두
\$5.99 2.65 LB

PULMUONE Cold Noodles with Radish Kimchi Broth
풀무원 냉면
\$4.99 30.7 OZ

HAIOREUM Korean Style Noodles - Somen
해오름 막국수
5 LB
\$4.99

FOODCELL Vermicelli Asian Style Starch Noodles
푸드셀 콩중당면
\$3.99 1.5 LB

GLICO Pocky
글리코 포키
2\$7 FOR 4.13 OZ (9 EA/PKG)

GLICO Pocky
글리코 포키
2\$7 FOR 3.81 OZ (9 EA/PKG)

HAIO Frozen Cooked Kimchi Flavored Vegetable Dumpling
해오름 김치순만두
\$5.99 2.65 LB

PULMUONE Cold Noodles with Radish Kimchi Broth
풀무원 냉면
\$4.99 30.7 OZ

HAIOREUM Korean Style Noodles - Somen
해오름 막국수
5 LB
\$4.99

FOODCELL Vermicelli Asian Style Starch Noodles
푸드셀 콩중당면
\$3.99 1.5 LB

GLICO Pocky
글리코 포키
2\$7 FOR 4.13 OZ (9 EA/PKG)

GLICO Pocky
글리코 포키
2\$7 FOR 3.81 OZ (9 EA/PKG)

BACK TO SCHOOL EVENT UNTIL AUG. 28th, 2025

Event 1 1+1 SALE
새학기 1+1 알뜰 쇼핑 찬스

Event 2 Free Giveaway
Purchase over \$50

Purchase over \$100

Purchase over \$200

CAMBRIDGE, SOMERVILLE, BROOKLINE STORES ONLY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0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 제 봉 DIRECTOR 781.654.5281 jee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thy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손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 보 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skim@bostonpremierrealty.com
--	---	--	---	---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617.447.0543 jeelee@bostonpremierrealty.com	 켄리 김 978.494.2043 jeelee@bostonpremierrealty.com	 니키 박 617.447.0501 niki@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파크 617.780.7635 peterpark@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리 978.866.3248 jinalee@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주 401.538.3397 eunjungkim@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김 617.838.0787 sarahkim@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전 617.835.7710 grace.jeon@bostonpremierrealty.com	 현수 김 617.538.8973 hyeonkim@bostonpremierrealty.com	 미나 송 213.503.0387 mina@bostonpremierrealty.com	 미카 리 413.507.1402 mikalee@bostonpremierrealty.com	 선호 김 617.913.3388 sungho@bostonpremierrealty.com
 희진 김 617.877.0387 jeelee@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주 781.838.3412 eunjungkim@bostonpremierrealty.com	 현수 김 781.959.1214 hyeonkim@bostonpremierrealty.com	 현수 김 617.913.1162 hyeon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주 617.913.0728 eunjung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주 404.641.9102 eunjungkim@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94.5810 tammywoolfolk@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952 nancywang@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4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Vivian Ye 617.936.2713 viviany@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Lu Jiang 248.449.0117 lujiang@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652 johntra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8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rros 978.873.0076 michael@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u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8.26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6.7212 lilywang@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wei@bostonpremierrealty.com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781.446.8995 jeelee@bostonpremierrealty.com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781.446.8995 jeelee@bostonpremierrealty.com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781.446.8995 jeelee@bostonpremierrealty.com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781.446.8995 jeelee@bostonpremierrealty.com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781.446.8995 jeelee@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文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 · 송철호 무죄 확정

尹검찰총장 때 수사 사건...1심 유죄→2심 무죄...기소 5년 7개월만 최종 결론
하명수사 개입혐의 백원우 · 박형철도 무죄...송병기 전 부시장은 징역형 집유
黃 "검찰 조작수사 · 보복기소 드러나, 책임 묻겠다" · 宋 "정치검사 사라져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당시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과 증거의 증명력,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뼈대로 한

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앞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송 전 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핵심 증인의 진술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 및 전달은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1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검찰에 이첩해 수사가 진행된 다른

어송전 시장이 황 의원을 통해 수사를 청탁했다는 검찰 기소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은 황 의원이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 소속 경찰관들을 전보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황 의원이 송 전 시장으로부터 김 의원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청탁받았다고 볼 수 없고, 소속 경찰관들 전보 조치가 관련 인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과 송 전 부시장 등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황 의원은 선고뒤 취재진에 "이 사건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 시작된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 실행 과정 중에 하나"라며 "이번 판결로 검찰의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검찰권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어버리는 검찰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與, 황운하 등 대법
무죄에 "사필귀정
...尹검찰 공작수사
종지부"

김건희 구속후 첫 조사에 "진상 낱알"
이...정청래 "쏘아게인도 외쳐주시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은 총력을 다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결국 진실을 이기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치공세를 일삼아 온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라.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 운운하며 궤변을 일삼을 셈인가"라며 "내란수괴의 검찰권 남용 실태를 명확히 규명하고 철저한 개혁으로 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을 잡기 위해 사돈의 친척까지 조사하고, 전 사위의 칠순 노모까지 괴롭히던 그 치열함은 선택적 치열함이었다. 이쯤 되면 반성이라도 제대로 하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 발부 후 처음으로 이날 김건희 여사를 소환한 것을 두고는 "철저한 조사로 구속 기간 내 진상이 낱알이 파헤쳐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별도로 낸 서면 브리핑에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적 대원칙엔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낱알이 규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주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참 의리 없다. 왜 '윤아게인'만 외치냐"라며 "내가 보기엔 김 씨가 더 중요하고 실세 같은데 기왕이면 '김건희 어게인'도 함께 외쳐주시라. 편중된 의리는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acdco@yna.co.kr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며 기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나머지 당시 청와대 인사들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

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

사건들을 예로 들며 청와대 내부 관련 보고서 작성 행위가 "공직비리 동향 파악에 해당하므로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이 2017년 9월 처음 만난 사이로 학력, 경력, 출신 지역 등 인적 연결점이나 개인적 인연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

위해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며 "책임져야 할 검사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송 전 시장도 "정치검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사실을 밝혀주는 재판부와 끝까지 믿고 위로해준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AUG. 14TH - AUG. 21ST, 2025

**Sokcho Style
Naengmyun**
속초식 명태회냉면
COLD/BIBIM - 69.84 OZ/SET

\$12.99

LIMIT 2



**NANUDAM 2-Tier
Lunch Box Set**
나누담 2단
도시락세트

LIMIT 2

\$11.99

2 TIER LUNCH BOX +
INSULATED BAG/SET



AUG. 14TH - AUG. 28TH, 2025

NORTH SEA Fish Snack
피쉬스낵

\$7.99

2 OZ X
4 EA/PKG

LIMIT 2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넷플릭스 더빙 현장서 본 '케데헌' 한국어판 탄생 비화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더빙은 듣는 것을 넘어서 경험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자막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한국에서도 다양한 해외 콘텐츠의 한국어 더빙을 지속 확대하며 시청자의 선택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세계의 다양한 콘텐츠가 한국어 더빙을 통해 국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방식과 그 영향력을 조명하고자 11일 '넷플릭스 해외 콘텐츠 한국어 더빙 이야기' 토크 세션을 열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더빙에 참여한 파트너사 '픽셀로직코리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넷플릭스 더빙팀 외에 성우 캐스팅부터 번역, 감수, 녹음, 믹싱까지 제작을 이끈 PD와 주연 캐릭터 루미와 진우의 더빙을 맡은 신나리, 민승우 성우가 참여해 더빙 제작 과정을 이야기했다.

최민디 넷플릭스 시니어 매니저는 넷플릭스에서 한국어 더빙의 영역이 점점 확대하고 있으며 시청도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시니어 매니저는 "더빙이라고하면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을 많이 떠올릴 텐데, 더빙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시청자는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다"며 "어린이·유아뿐 아니라 귀로 듣는 콘텐츠를 선호하는 고령층도 있고, 집안일이나 출근, 운동 중에 한국어 더빙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해외 한인들이 자녀에게 한국어 교육용으로 더빙을 사용하기도 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더빙에 음성 화면해설을 더한 콘텐츠가 활용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어 더빙을 담당한 김형석 PD는 진우 역의 민승우 성우를 캐스팅하는 데 있어서 "보통을 넘는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귀마' 역의 이병헌 배우의 아우라에 밀리지 않아야 하고, 따뜻한 감정 표현도 가능해야 하기"에 고민을 많이 했다"며 "먼저 녹음한 이병헌 배우의 모습을 틀어놓고 민승우 성우가 맞춰 연기하는 것을 보고 풀리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소개했다.

민 성우는 "애초이 작품의 주인공은 헛리릭스니까 저는 빌런(악당)이라고 생각했다"며 "진우는 입체적이고 사연이 있으며, 밍지만은 않고 측은지심과 동정,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등 매력적인 빌런의 요소를 너무 잘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 후반부 루미가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진우에게 '네가 어떻게 이래'라고 말한 뒤 진우가 이야기하는 장면은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야 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다"며 "꾸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과물이 제 기량보다도 더 많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신나리 성우는 "가장 기억나는 장면은 루미가 양부모인 셀린과 대치하는 장면"이라며 "자신에게 '문양'이 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셀린의 제지로 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면서 체념하는 마음과 함께 해방감 같은 것도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 장면을 연기할 땐 루미가 안타까웠고 그만큼 더 잘 표현해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반면 "첫 장면 비행기에서 김밥 먹고 라면 먹고 하는 평범한 소녀들의 모습은 가장 편하게 녹음했고 가장 즐겁게 했다"고 덧붙였다.



다.

두 성우는 극중 루미와 진우가 만나 대화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시연하기도 했다.

넷플릭스는 한국어 더빙 업계의 지속적 성우 양성을 위해 신예와 베테랑 성우를 다양하게 기용하며 세대가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신인아이돌이 활약하는 콘텐츠에 맞춰 새로운 목소리가 어울릴 것으로 보고 대부분의 배역을 자유계약 성우가 된 지 얼마 안 된 신인 성우들이 맡았다고 설명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노래들을 한국어로 더빙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김민수 픽셀로직코리아 디렉터는 "노래는 (더빙으로) 녹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체성이 더 맞다고 생각했다"며 "원곡을 부른 아티스트가 한국인이고 노래 자체가 케이팝 장르인 점을 고려해 한국어 더빙 버전에서도 노래는 원곡 그대로 사용하는 것

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디렉터는 다만 한국어 더빙판의 노래 부분 자막을 보면 원곡과 많이 다르다며 "많은 작업자들이 참여해서 그 가사가 나왔다"며 "저희가 노래하듯이 그렇게 썼다"고 말해, 한국어 노래를 위한 작업이 상당 부분 진척됐음을 시사했다.

또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한국어 더빙 역시 '돌비 애트모스'로 녹음돼 극장과 같은 현장감·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고 넷플릭스는 소개했다.

김형석 PD는 아직은 '더빙은 어색하니까 볼 것도 없다'는 선입견을 갖고 더빙 콘텐츠를 아예 보려는 시도를 안 하는 경우도 많다고 느낀다며 "조금만 더 문을 열고 진심으로 느껴주시면 원작을 뛰어넘어 더 큰 재미와 교훈, 한국 정서에 맞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열린 마음으로 더빙을 사랑해주시면 더 많은 즐거움과 감동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ao@yna.co.kr

로제, MTV VMA 8개 부문 후보... "충격에 말을 잃었다"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미국 주요 대중음악 시상식인 '2025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MA)에서 총 8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5일(현지시간) VMA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 명단에 따르면 로제는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의 듀엣곡 '아파트'(APT.)로 주요 부문인 '비디오 오브 더 이어', '송 오브 더 이어'를 포함해 총 7개 부문 후보로 지명됐다.

여기에 솔로 앨범 '로지'(rosie) 수록곡 '톡식 킬 디엔드'(toxic till the end)가 '베스트 K팝' 후보로 오르면서 로제는 최대 8관왕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올해 VMA에서 가장 많은 부문 후보로 지명된 가수는 12개 부문 후보에 오른 레이디 가가다. 로제와 협업한 브루노 마스가 11개 부문 후보로 뒤를 이었다.

로제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VMA 8개 부문 후보에 지명됐다는 사실을 방금 들었다"며 "충격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기쁨을 드러냈다.

VMA '베스트 K팝' 부문에는 로제를 비롯해 제니 '라이크 제니'(like JENNIE), 지수 '어스퀘이크'(earthquake), 리사 '본 어게인'(Bom Again)까지 블랙핑크 멤버 전원이 후보에 올랐다.

이와 함께 에스파 '위플래시'(Whiplash), 방탄소년단(BTS) 지민 '후'(Who), 스트레이 키즈 '척척봄'(Chk Chk Boom)도 수상을 노린다.

하이프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 아이는 '터치'(Touch)로 '푸시 퍼포먼스 오브 더 이어'(PUSH Performance of the Year) 후보에 올랐다.

'푸시 퍼포먼스 오브 더 이어'는 MTV가 매달 아티스트를 선정해 퍼포먼스 영상 등을 선보이는 'MTV 푸시' 캠페인에 출연한 이들 중 한 팀에 돌아가는 상이다.

VMA 시상식은 다음 달 7일(현지시간) 뉴욕 UBS 아레나에서 개최된다.



KOREAN HERITAGE NIGHT 08.22

우스터와 함께하는 특별한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KOREAN
CONSULATE
GENERAL
IN BOSTON



티켓구매

Polar Park
100 Madison St.
Worcester, MA 01608
6:00 P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24) 국민 총생산량과 주식시장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2025년 2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3.0% 성장했다. 경제가 확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식 투자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체감경기가 여전히 나쁘게 느껴지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은 곧 부의 축적 기회를 의미하며, 이를 잘 활용하는 개인 투자자도 점점 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GDP와 주식시장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살펴보자.

미국이 독립한 지 249년이 지났다. 당시에는 국민 자산에 대한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았을 만큼 자산 수준이 미미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 국민 전체의 순자산은 약 180조 달러(\$180 trillion)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순자산이란 주택, 주식, 채권, 자동차, 현금 등 모든 자산에서 부채(주택 담보대출, 신용카드부채, 학자금대출, 자동차 할부 등)를 뺀 순수한 자산을 말한다.

1776년 독립 당시 국민의 약 90%가 농업에 종사했지만, 현재는 1%도 되지 않는다

. 그런데도 미국은 식량 자급은 물론 농산물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답은 분명하다. 바로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Innovation & Productivity) 덕분이다. 과거 농업에 종사하던 다수는 이제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 GDP는 1948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기업의 이익은 연평균 약 3%,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은 평균 2.5%씩 증가했다.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통해 더 낮은 비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수익을 창출한다. 이익은 배당금, 자사주 매입, 그리고 재투자를 통해 투자자에게 돌아가며, 그 결과 기업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일각에서는 지난 15년간의 주식시장 상승을 근거로 조정장이 곧 올 것이라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경고가 실제 투자 수익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2010년 초부터 2024년 말까지 미국

주식시장은 400% 이상 상승했다. 10만 달러를 투자한 사람은 50만 달러 이상을 손에 넣었다. 시장의 단기 흐름을 예측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한 이들은 상당한 수익을 얻은 반면, 투자를 망설인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친 셈이다.

일반적으로 GDP가 성장하면 S&P 500에 속한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으로 GDP가 1% 성장할 때 기업 이익은 약 2.5~3%씩 더 빠르게 증가해 왔다. 물론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항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성장해 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수많은 기업 중 누군가는 항상 수익을 내며, 투자자들은 그 수익을 기대하며 시장에 계속 자금을 투입하기 때문이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Risk)'이 따르며, 피할 수 없는 하락도 존재한다. 따라서 하락장이 왔을 때에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워런 버핏의 오랜 동업자 찰리 멩거는 이렇게 말했다. "한

세기에 두세 번 주가가 50% 하락하는 상황을 침착하게 견디지 못한다면, 당신은 기업의 수익 창출 결과를 누릴 자격이 없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Fidelity)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401(k) 백만장자 수는 약 53만 7천 명으로, 2023년 말의 42만 2천 명 대비 27% 증가했다.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월급이나 자영업 수입만으로는 자산 형성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일하게 될 것이다."

(If you don't find a way to make money while you sleep, you will work until you die.)

내일, 다음 달,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팬데믹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해 온 사람만이 그 대가를 누릴 수 있다. 결국 투자는, 미래를 향한 믿음과 인내심에 주어지는 보상이다.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을 받아 보는 방법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종이 신문 번갈아 매 격주로 발간됩니다. 보스톤 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매주 금요일 2만명의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고 있으며, 평균 5천명이 넘는 독자들이 이메일을 열어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문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첫째,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이란 제목으로 이메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매 격주 PDF 지면으로 이메일을 통해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 방법

1. 보스톤코리아 닷컴에 회원가입을 신청해주세요.
2. 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지금은 바이어스 마켓으로 바뀌었나?

"Is the market shifting to a buyers' market?"

내가 너무나도 많이 받는 질문이다. 계속 올라가는 집값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며 질문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집이 나오면 오퍼(Offer)가 10개씩 들어오던 예전과 달리 이제 그리 많은 오퍼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바이어 마켓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

정확히 말하면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가장 집값이 많이 떨어진 지역 10군데를 소개해 보겠다.

- 10. Denver, Colorado
- 9. Santa Clarita, California
- 8. Dallas Texas
- 7. Riverside, California
- 6. Henderson, Nevada
- 5. Naples, Florida
- 4. Miami, Florida
- 3. Austin, Texas
- 2. Las Vegas, Nevada
- 1. Phoenix, Arizona

통계에서 밝혀진 위의 순위를 보면 우리 한인들에게 친숙한 도시도 있는가 하면 생소한 도시 이름들도 많다. 이 열개 도시들의 공통점이 있다. 지난 5년간 집값이 매년 30% 이상씩 올랐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값 거품(Bubble)이 있었던 도시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중에는 노인들이 제일 은퇴하고 싶은 도시인 네이플(Naple, FL)이 있고 미국에서 한인들이 많은 도시인 달라스(Dallas, TX)도 있다.

오스틴(Austin, TX)은 지난 5년간 Tesla, Apple, Oracle, 특히 삼성 등 많은 회사들이 이곳으로 옮겼다.

산타클라리타(Santa Clarita, CA)라는 도시 이름은 잘 들어 보시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곳은 LA에서 30 마일 정도 북서쪽에 있는 도시이다. 대 도시에선 좀 거리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매물(Inventory)이 많아지면 집값은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리버사이드(Riverside, CA)도 마찬가지이다. 엘에이에서 50마일정도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이므로 대도시에서는 거리가 있다.

몇 도시만 빼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도시(Metropolitan area)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도시들이 많다.

마이애미(Miami, FL)같은 경우 팬데믹 후에 집에서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아 많은 분들이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많이 이주하셨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것처럼 팬데믹 때 많은 동부 인구가 마이애미로 이주했었다. 근데 허리케인 등에 자연재해로 집보험비가 많이 올라 많이들 다시 떠나는 추세이다.

오늘 칼럼에 대한 결론을 말하면 "Is the market shifting to a buyers'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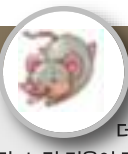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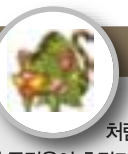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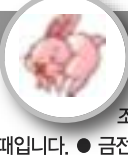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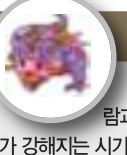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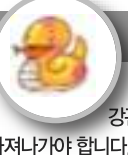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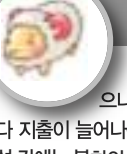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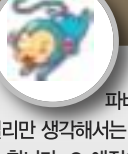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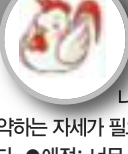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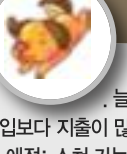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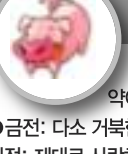
위에 10개에 도시를 보면 공통점들이 지난 5년동안 터무니없이 집값이 갑자기 많이 올랐고 대도시에서 거리가 먼 도시들이 많다. 팬데믹 시기에 집값이 저렴하거나 바다를 끼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보고 싶은 꿈의 도시들이

며, 집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사한 도시들이 많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이 이제 일터로 많이 돌아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도시들에 집값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8월 17일 - 8월 23일

재미로 보는 **주간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 운수: 변화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획기적인 기회가 생기더라도 급하게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느린 걸음이 낫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빠른 것이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 애정: 무리하지 않도록 하세요. 상대의 마음이나 현재 처한 상태를 보아가면서 자기 뜻을 전달해야 통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9, 22일 길일. 17, 20일 주의.	 소띠 풍요로움이 가득 차는 ● 운수: 지금 이 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헛되이 보낸다면 자신의 목적은 이루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 금전: 투자하기에 적합한 시기를 만났다고 하겠습니다. 문서로 인한 이익이 기대되고 횡재수도 있습니다. ● 애정: 가정 내에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가득 차는 최고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정되어가고 있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0, 23일 길일. 18, 21일 주의.	 범띠 진실한 관계에 놓이게 되면 ● 운수: 쉽게 풀리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처럼 답답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손쉽게 금전운이 호전되어 나옵니다. 자금 압박을 크게 느끼지 않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주가 됩니다. ● 애정: 서로가 거짓을 벗어 던지고 진실한 관계에 놓이게 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갑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7, 21일 길일. 19, 22일 주의.
 토끼띠 확신을 얻게 되는 ● 운수: 그동안 문서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순조롭게 해결될 것입니다. 거래나 교섭에서 자신의 능력이 돋보일 때입니다. ● 금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애정: 생활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도 얻게 됩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8, 22일 길일. 20, 23일 주의.	 용띠 현실주의가 강해지는 ● 운수: 두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로 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호흡을 잘 맞춰야 성과가 좋을 것입니다. ● 금전: 현실주의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실속을 차려야겠다는 심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 애정: 사랑에 국경이 없다고 하지만 분별없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짝이 아니면 눈도 돌리지 않도록 합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9, 23일 길일. 18, 21일 주의.	 뱀띠 내적인 것을 견고히 다져야 ● 운수: 결과가 좋은 나쁜 극적인 일이 많을 것입니다.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 금전: 내적인 것을 견고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큰 기쁨과 결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일시적인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긴 안목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정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8, 20일 길일. 19, 22일 주의.
 말띠 모든 것은 마음이 근원 ● 운수: 모든 것은 마음이 근원입니다. 마음을 바꿔먹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 금전: 주위의 도움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고 있습니다. 나갔던 돈도 회수될 것입니다. ● 애정: 부모와 자식 사이는 물론 부부간에도 칭찬이 필요한 때입니다. 칭찬이 얼마나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가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8, 21일 길일. 20, 23일 주의.	 양띠 잠시 멈춰 서서 ● 운수: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항상 전진만 할 수는 없으니 잠시 멈춰 서서 여유를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이므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 애정: 이성 간에는 불화의 운이 있으며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해집니다. 그 허망함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17, 22일 길일. 21, 23일 주의.	 원숭이띠 번개를 맞은 듯이 ● 운수: 이제까지 자신을 힘들게 해왔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파바박 하고 번개를 맞은 듯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 금전: 당장 실리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주어야 할 것은 미루지 말고 깨끗이 해두어야 합니다. ● 애정: 사소한 계기로 싸움이 나고 이것이 감정대립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20, 23일 길일. 17, 22일 주의.
 닭띠 절약하는 자세가 필요한 ● 운수: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해서는 항상 주위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절약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지출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 애정: 너무 가깝다 보면 말을 안 해도 이해해 주기도 하지만 세심한 배려의 말이 부족해 서운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19, 20일 길일. 21, 23일 주의.	 개띠 표현을 자제해야 ● 운수: 일의 시작은 화려하고 좋으나 끝마무리가 약합니다. 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 금전: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집니다. 지출도 많아서 힘겨운데 손을 벌리는 곳이 있군요. ● 애정: 스쳐 가는 사랑이라면 잊어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마음이 산만하더라도 일시적 감정으로 표현을 자제해야 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7, 19일 길일. 18, 21일 주의.	 돼지띠 서서히 열음이 녹듯 ● 운수: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받는 이에겐 큰 약이 됩니다.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가 새로운 힘을 창조해 줍니다. ● 금전: 다소 거북한 일이 있어도 서서히 열음이 녹듯 해결되어 나갈 것입니다. ● 애정: 제대로 사랑하기란, 제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면서도 표현방법이 서툴면 엇갈리게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8, 23일 길일. 19, 22일 주의.



'악마가 이사왔다' 이상근 감독 "선한 사람 성장 표현하며 희열"

(서울=연합뉴스) 기자 = "깜깜한 무대 천막 뒤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 부르러 가기 직전의 마음이에요. 관중들이 내 노래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하는 궁금증과 두려움 같은 거죠."

6년 전 조정석·임윤아 주연의 영화 '엑시트'로 데뷔해 942만 관객을 끌어모았던 이상근 감독은 신작 '악마가 이사왔다' 개봉을 앞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만난 이상근 감독은 "첫 작품을 할 때는 아무것도 몰라 편했는데, 이번에는 (사사회 이후) 3일째 잠을 못 자고 있다"며 미소를 지었

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걸 보여드려야 차기작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켜드릴까 고민도 했지만, 결국 제가 잘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악마가 돌아왔다'는 이 감독이 11년 전 '두시의 데이트'라는 제목으로 쓴 초고를 발전시켜 탄생한 영화다. 새벽 2시가 되면 다른 인격이 깨어나는 선지(임윤아 분)와 그를 보호하는 이웃 길구(안보현)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담았다.

이 감독은 "기본적으로는 (영화에) 선한 사람들이 나오는 걸 좋아한다"면서 "그들이 발전하고 성장

해나가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희열을 많이 느낀다"고 설명했다.

배우 임윤아와는 '엑시트'에 이어 한번 더 호흡을 맞췄다. 임윤아는 청초한 '낮 선지'와 악마 버전의 '밤 선지'를 모두 연기하며 한강에 뛰어들거나 얼굴을 한껏 일그러뜨리는 연기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이 감독은 임윤아에 대해 "작품을 한번 같이 한 좋은 추억이 있던 터라 벽이 허물어져서인지 '얼굴 구기는' 연기 등도 거부감없이 해줬던 것 같다"면서 고마움을 표시했다.

덩치 큰 강아지처럼 순한 길구

는 안보현이 연기했다. 이 감독은 "안보현은 누가 봐도 '알파 메일'(alpha male·우월한 남성) 같은 느낌이지만, 내면에는 작고 소중한, 고양이 같은 면도 있을 것 같았다"고 캐스팅 배경을 들려줬다.

임윤아와 안보현은 6일 열린 시사회에서 완성된 작품을 처음 본 뒤 입을 모아 "몽글하고 찜했다"면서 감동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감독은 "배우들이 작품을 좋게 보고, 자신이 잘했다는 걸 깨달은 게 제게는 선물같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상근 표 코미디'에 대한 철학도 밝혔다.

이 감독은 "가장 큰 기조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희화화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영혼까지 박살내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의 인격을 파괴하면서 웃음을 유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진라면 순한 맛' 버전으로 할 수 있는 코미디를 실험적으로 해 보는 단계"라고 덧붙혔다.

"피식피식 웃으며 캐릭터에 빠져들다가, 어느 순간엔 감동과 약간의 눈물도 있고, 마지막에는 좋은 미소로 끝나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 스포티파이 10억 스트리밍 돌파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스트리밍 10억회를 돌파했다.

8일(현지시간)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캣츠아이가 데뷔 이래 발표한 총 13곡의 누적 재생 수는 10억회를 넘겼다. 작년 6월 28일 데뷔해 1년 1개월여 만에 이런 기록을 달성했다.

하이브 레이블즈는 "두 번째 미니앨범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 수록곡들이 큰 인기를 끌며 스트리밍 증가 추이가 가팔랐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이 앨범에 담긴 '가브리엘라'(Gabriela)는 음원 공개 38일 만에 1억 스

트리밍에 도달해 자체 최단 기록을 세웠다.

1억 스트리밍까지 '날리'(Gnarly)는 52일, '터치'(Touch)는 82일이 걸렸다.

하이브 레이블즈는 "캣츠아이의 인기 배경에는 폭발적인 라이브 퍼포먼스가 한 몫했다"며 "이들은 최근 미국 음악 축제 '롤라팔루자 시카고'에 출연해 약 40분간 에너지 넘치는 공연을 펼쳤고, 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캣츠아이는 16~18일 일본에서 열리는 '서머소닉 2025'와 '서머소닉 엑스트라'에 출연한다.

tsl@yna.c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광복 80주년과 그리고 기독교의 역할

2025년 8월 15일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날이다.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대한독립 만세! 광복을 외치는 환호와 환희의 소리’ 그때의 코흘리개 어린 아이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세월만큼이나 낡아진 헌옷처럼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저 매스컴에서 해마다 치러지는 ‘8.15 광복절’ 행사가 있다네! 이런 정도로 넘기는 것이다.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다.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는 일제강점기 36년을 기억하고 피토하는 어조로 자식들에게 일깨워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가.

그 한으로 뒤덮인 시대에 민족의 해방을 위한 신앙의 선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우리의 주권을 되찾은 광복은 가능했으리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은 기독교 말할 정책까지 세워 가며 종교 탄압과 성경을 읽는 것마저도 금지시키는 일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독립운동은 더욱더 확고하고 많은 믿는 자들에게 확산되었다. 어둠에 갇힌 36년의 그 시간이 헛되

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광복 80주년을 맞으며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들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떠올리게 된다.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경고의 나팔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것은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닌 회개하고 얼른 돌아오라는 말씀이셨던 것이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내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아찔아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 마음에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당시 한국 방문 중에 있었다. 뉴스를 보는 것마저 숨이 막혀울 지경이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타국에서 40년을 살아도 여전히 내 조국에 대한 바람은 흔들림 없이 든든하고 탄실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 늘 간절하다. 타국에 살아도 친정과 같은 ‘내 조국’ 이 잘 살아야 시택에서 대접받는 것처럼 타국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타국에 살면 더 애국자가 된다고 하지 않던가. 내 조국을 위한 구국기도는 일주일에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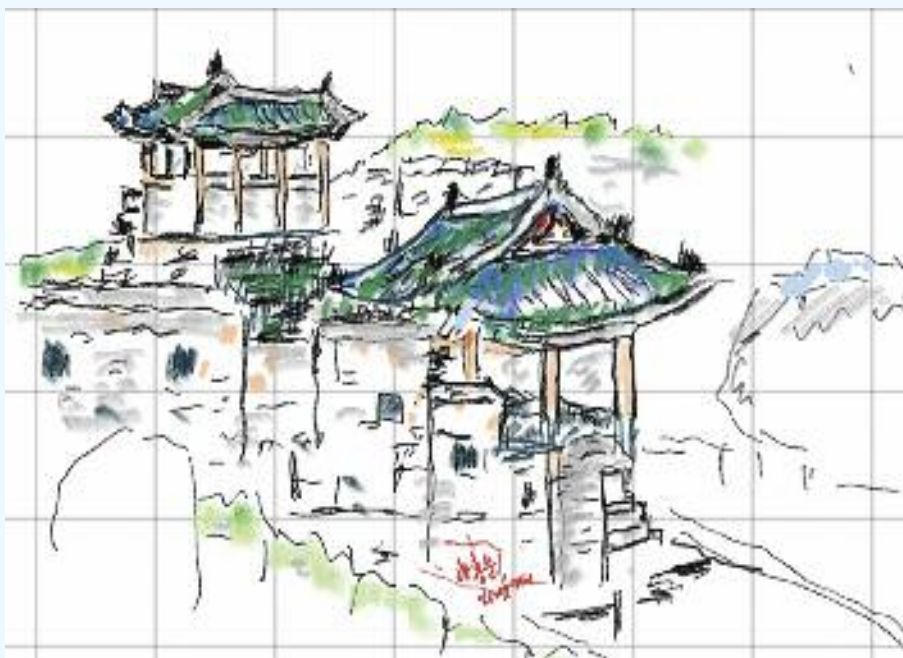
회 정도 참석하는 기도회 때마다 참석한 목사들과 그 외 성도들이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의 기도’ 밖에는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상은 점점 터널을 지나는 듯 어둡고 여기저기 시끄럽고 가짜들이 판치는 혼돈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어두울 수록 빛은 더욱 그 위력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의 ‘참빛’ 을 비출 수 있어야 한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 스스로 안에서 ‘하나님의 참빛’ 을 비춰야 한다. 거짓없는 참을 말뿐이 아닌 삶 속에서 살아야 한다. 어둠이 있기에 빛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어느 어둠에 빛을 비출 것인가.

세상은 스몰월드가 되었다. 미국 뉴욕에서 무엇인가 이야기하면 유럽과 아시아 그 어느 곳에도 단시간에 확산된다. 그 영향력이란 가히 무서울 정도이다. 그렇다면 광

복 80주년을 맞는 2025년 8월 15일의 이 시점에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바라보는 북한은 어떤가. 너무도 가깝고도 또한 너무도 먼나라가 아닌가. 우리 선진들이 기독교를 일찍이 받아들이고 한국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곳이 황해도의 소래교회라고 한다. 그 기독교의 역사가 뿌리박힌 그 곳에서 ‘하나님의 참빛’ 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한 세기가 다 되어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을 맞아 가슴 아리보다는 기쁨이 더 커야하는데 웬지모를 덜어 내지 못한 마음에 남은 앙금은 무엇일까. 내 조국에 대한 세계 속 국가와 정치와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 안전과 안정과 그리고 평안함을 위해 간절한 마음의 기도하는 것이다. 광복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를 향한 얼마나 빠른 고도의 성장을 해왔던가. 지금은 다시금 재정비하며 나아가야 할 때 그래서 더욱 든든히 서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을 응원하며 기도한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코리아니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자포니즘 (Japosism). 유럽의 일본 문화 열풍을 상징하는 말이다. “19세기 후반 서구 미술계에 일본 미술·공예의 영향이 유행처럼 번진 현상” 이라는 거다.

극일克日이란 말이 있다. 일본을 극복하겠다는 사상이나 신조, 용어, 운동,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이 경쟁력을 키워서 일본을 앞섬으로서 일본을 이기겠다는 사고방식’ 이라 정리할 수 있겠다. (나무위키).

이젠 극일을 넘어 승일勝日이라 한다. 어색한 신조어이지만, 충분히 이해 할수있겠다. 작년 2024년을 기준으로 이미 국민 일인당 소득은 일본을 앞선다고도 했으니 말이

다.

살다살다 이런날이 오는 줄은 생각치 못했다.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니 격세지감인 게다. 한국이야 지난 반세기이상을 가파르게 올라서려 노력했던 결과일거라 본다. 한편 일본은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가.

축구경기도 다른 나라에게 지는 건 용서할 수있다. 그러나 일본에게 진다면 분함을 참지 못한다고 했다. 열불이 터진다 했던가. 나역시 다르지 않다.

한국 소설 ‘칼의 노래’ 마지막 구절이다. 노랑대접중 이순신장군의 독백이다. ‘세상 끝이 이처럼 가깝고 또 고요할 수 있다는 것이... 칼로 베어지지 않는 적들을 이세

상에 남겨 놓고 내가 먼저... 관음포의 노을이 적들 쪽으로... (지고 있구나).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 말을 매듭지을 수 없었다. 아마도 지고있구나 였을 것이다. 혹자는 노랑해접이 오전 정오즈음에 끝났다 했다. 아직 노을이 지기에는 이른 때였다. 그럴 적에 관음포의 노을은 생사의 가름길에서 환상이었을 지도 모르겠다. 새벽 여명이나 밝고 붉게 떠오르는 붉은 태양은 임종과 어울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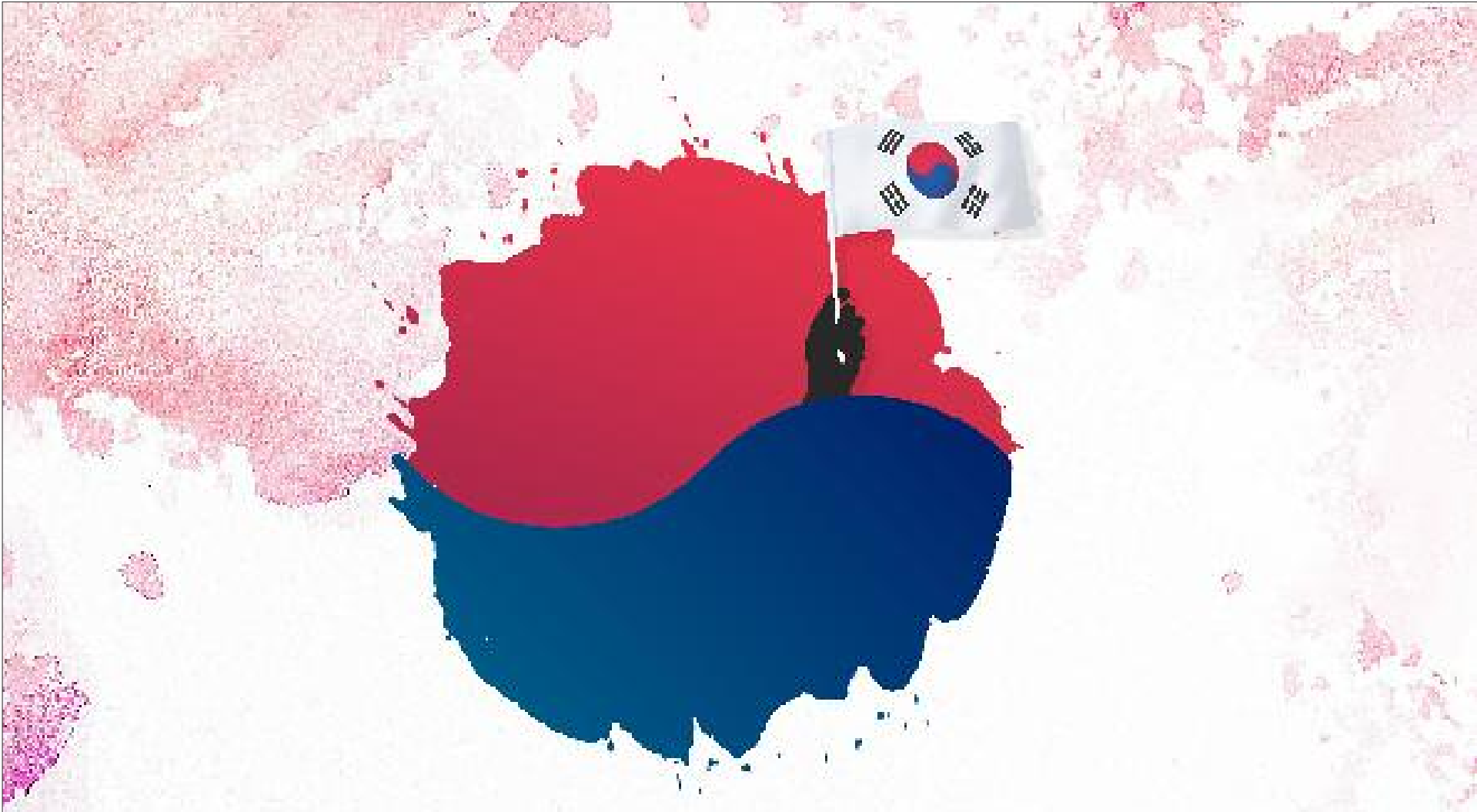
이젠 아예 말을 바꿔야겠다. 이젠 자포니즘을 넘어 코리아니즘 (Koreanism) 이라 해야 할까. 21세기 전반 영화를 비롯한 예술계에 한국 문화예술의 영향이 유행처럼 번진 현상일 테니 말이다.

성웅 이순신장군이 지금 살아 돌아 오신다면, 광화문 동상에게 뛰어 내리실 게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야 소원을 성취했노라 말씀 하셨으리라.

한국의 전前대통령이 일갈했더랬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그분 또한 통찰력이 있으셨던 모양인가. 일본은 버르장머리 단단히 고쳤을까. 그건 확실치 않다.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고전 13:5, 현대인 성경)

참) 코리아니즘이란 말은 한국신문에서 읽고 기억하고 있다.



되찾은 조국의 광명

8월 15일

광복절

시간: 2025 년 8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One Gateway Center),
300 Washington Street
Suite 800. Newton, MA 02458



보스톤 대한민국 총 영사관



매사추세츠 한인회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주의

여름철 식중독 주의!

여름철 식중독

- 고온다습: 음식 변질, 세균 번식 활발
- 식중독에 의한 장염 발생률 증가

예방법



손 위생



익혀 먹기



식재료 구별 사용



세척 소독



개인 식기 사용



냉장 보관

장염 증상 및 치료

- 복통과 설사, 구토, 발열 등 4~7일 지속
- 면역력 약한 고령자, 유아; 악화될 수 있어 위험
- 탈수 방지를 위해 수분 섭취, 수액, 항생제 투여



자료제공: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음식물 변질이 쉬운 여름철에 식중독에 감염되어 병원을 찾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여름철 식중독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소아청소년과 양 무열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서울 방배동의 한 김밥 가맹점에서 김밥을 먹은 시민 130여명이 고열과 복통 등 집단 식중독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밥 집단 식중독 사태 후 진료실로 김밥을 먹고 살모넬라 균에 감염되어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많이 내원했다.

최근 3년(2021~2023 년)간 김밥 전문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 원인은 대부분 살모넬라균

으로 조사되었는데 살모넬라균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증식하기 때문에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장마철 습도가 높고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지속되는 기간에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도 변질되기 쉽고 세균 번식도 활발해지면서 식중독에 의한 장염 발생률이 증가한다.

장염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에 의해 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복통과 설사, 구토, 발열 등 증상이 4~7일 정도 지속되며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와 유아는 패혈증과 장관 외 감염으로 악화되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치료는 수분 공급이 핵심으로 탈수 증상을 막기 위해 전해질이 포함된 수분 보충제나 물을 자주 섭취해야 한다. 구토와 구역이 심해 수분 섭취가 힘들다면 병원에서 정맥 주사로 수액 보충이 필요할 수도 있다. 살모넬라균은 장 내에서 배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사 억제 작용을 하는 지사제 사용은 오히려 회복을 지연

시킬 수 있어 피해야 한다.

대부분 자연 회복이 되지만 고열이 계속되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면역저하자, 고령과 영유아는 의사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항생제를 투약하게 된다.

여름철 장염 예방을 위해서는 손 위생(손씻기, 손소독제)은 기본이며, 개인 식기 사용을 권장한다. 음식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하고 달걀과 고기류는 내부까지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한다. 반숙 계란과 생고기는 여름에는 피하는 게 좋다. 칼과 도마는 생고기용, 채소용으로 분리 사용하여 식재료를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

살모넬라균은 오염된 달걀과 같은 가공류나 복합 조리식품이 원인으로 달걀 보관은 구입 후 바로 냉장 보관하고, 금이 간 달걀은 사용하지 않는다. 마요네즈와 샌드림은 실온에 오래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물은 끓여 마시거나 안전한 생수를 사용하며 얼음 보관 관리도 중요하다.

특히 단체 급식소와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데, 이번 김밥집 집단 식중독 사태처럼 단체 식중독 사고의 상당수가 살모넬라균과 관련 있기 때문에 조리과 식재료 보관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여름철 식중독 주의”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치과** 서비스 **휴람** 을 이용해보세요!



나이를면서 잇몸질환으로 고민이 많으시죠?
치과의 퀄리티는 당연히 한국 치과입니다.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치료기간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신 치과치료...
지금 상담을 통해 치료견적 확인 후 한국에서의 치과치료 준비해보세요!!!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 치과 이벤트

- ❶ 임플란트 오스템 **[99만원~]**
- ❷ 임플란트 외산 **[165만원~]**
- ❸ 스케일링+구강검진+치아X-RAY **[5만원~]**
- ❹ 라미네이트 **[40만원~]**
- ❺ 미백 **[30만원~]**
- ❻ 전체틀니 **[180만원~]**
- ❼ 크라운 **[40만원~]**
- ❽ 충치치료 **[국내수가]**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치아 X-RAY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치과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미소랑치과(양재역, 발산역, 서울대역, 샛강역)
옥스치과(강남역)
스카이뷰치과(신논현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득과 비용, 그리고 감가상각의 절세 비밀

Article (14) – Can real estate income and expense reduce income tax?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 NMLS 1464242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 NMLS 254895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978) 314-8818
mike.lee@gmccloan.com

부동산 소득과 비용, 그리고 감가상각의 절세 비밀

투자 수익이 늘어날수록 세금 부담도 함께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서는 ‘감가상각’이라는 독특한 절세 제도를 활용해 실제 현금 지출 없이도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세금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득의 과세 구조

미국 세법상 임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임대료뿐 아니라 주차비, 세탁기 사용료, 계약 위약금 등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수 소득도 포함됩니다. 세금 신고 시 개인 납세자는 Form 1040의 Schedule E(부동산 임대소득 보고서)에 이를 기재합니다.

감가상각, 부동산 절세의 핵심

감가상각이란 건물의 가치를 일정 기간에 걸쳐 경비로 나누어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주거용 임대 부동산은 건물 가치(토지 제외)를 27.5년에 걸쳐 나누어 매년 세금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가치가 \$275,000라면, 매년 약\$10,000을 경비로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현금이 실제로 나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대수입이\$30,000이고 실제 지출 경비가 \$20,000일 경우, 감가상각 \$10,000을 추가로 적용하면 과세소득은 \$0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세금은 전혀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타 경비 공제 항목

감가상각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 재산세(Property Tax)
- 모기지 이자(Mortgage Interest)
- 수리 · 유지비 (Repairs & Maintenance)
- 보험료(Property Insurance)
- 광고비 및 임대 마케팅 비용
- 관리비(HOA Fee)

투자 상품으로서 부동산, ‘3중 효과’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임대 수익만 바라

항목	경비 없음	경비만 적용	경비 + 감가상각 적용
연간 임대수입	\$30,000	\$30,000	\$30,000
실제 지출 경비	\$0	\$20,000	\$20,000
감가상각비	\$0	\$0	\$10,000
과세 대상 소득	\$30,000	\$10,000	\$0
세율 가정 (22%)	\$6,600	\$2,200	\$0
세금 절감 효과	—	\$4,400 절감	\$6,600 절감

임대소득 과세소득 비교 예시

보는 상품이 아닙니다. 감가상각을 통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리면서, 시간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 증식 효과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달 임대료가 모기기 상황을 대신해 주면, 투자자의 자기자본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1)현금흐름: 매달 임대 수입 발생, (2)세금 절감: 감가상각 · 경비 공제를 통한 절세, (3)자산 가치 상승: 장기 보유 시 시세 상승과 원금 상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해 부동산 투자는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장기적으로 강력한 복리 효과를 제공합니다.

주의할 점

감가상각은 강력한 절세 수단이지만, 부동산을 매각할 때 ‘감가상각 환수(Depreciation Recapture)’라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보유 전략, 1031 Exchange(동종자산 교환) 등과 함께 설계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는 감가상각을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야 세금 부담을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적용 조건은 복잡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타이레놀 먹을까? 이부프로펜 먹을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미국 내과 / 비만 전문의 이용현

Charles River Medical Associates - Obesity Clinic
61 Lincoln Street, Suite 301, Framingham, MA 01702
508-820-8332

감기, 두통, 근육통, 생리통... 아플 때 가장 먼저 찾는 약 두 가지, 바로 이부프로펜과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입니다.

같은 ‘진통제’지만, 작용 방식도 다르고, 잘 맞는 상황에 전혀 다릅니다.

그저 아무거나 먹는 건, 때론 실수로 이어질 수 있어요.

🔍 두 약, 어떻게 다를까요?

이부프로펜은 통증과 열을 줄일 뿐 아니라,

붓기나 염증까지 함께 잡아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통, 생리통, 치통, 인대 염좌처럼 붓고 육신거리는 통증에 더 효과적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열과 통증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둔 약입니다.

하지만 염증 자체를 가라앉히는 작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열이 나거나 단순한 통증에 적합하며,

위나 신장에 부담이 적어 전반적으로 더 순한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이렇게 선택하세요

붓고 육신거리는 통증이라면 → 이부프로펜

열이 나거나 단순한 두통이라면 → 아세트아미노펜

위염, 위궤양, 신장 질환이 있다면 → 아세트아미노펜이 더 안전

간이 약하거나 술을 자주 마신다면 → 이부프로펜이 상대적으로 안전

⚠️ 이런 점은 꼭 주의하세요

이부프로펜은 장기 복용 시 위 출혈이나 신장 손상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 복용 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하루 최대 복용량(4,000mg)을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 결론: 어떤 약이 내게 더 맞을까?

염증성 통증이 문제라면 → 이부프로펜
위나 신장이 약하다면 → 아세트아미노펜

간 질환 병력이 있다면 → 이부프로펜 쪽이 더 안전

장기 복용이 필요하다면 →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 두 약 모두 효과는 뛰어나지만,



내 몸에 더 안전한 약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올바르게 선택하면, 효과는 높이고 위험은 줄일 수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교회협의회 | 가을부흥집회

교회여, 일어나라!

2025. 09. 05 (금) - 07(주일)

성요한교회
2600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1



권 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담임목사
UCIC 기독교 이사장
OM KAM 이사장
쥬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미주 대표

5 금

교회여, 다음 세대를 부흥케 하자!

(룻 1:1-6) | 저녁 7:30

6 토

교회여, 끊임없이 변화하자!

(마 9:14-17) | 저녁 7:30

7 주일

교회여, 부르심 앞에 서자!

(행 2:42-47) | 저녁 6:30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 나사렛사랑교회 · 내슈아현마음교회 · 뉴햄프셔감리교회 · 뉴햄프셔현인교회 · 로드아일랜드감리교회 · 로드아일랜드재일현인교회 · 로드아일랜드중앙현인교회 · 라이코스교회 · 무지개연합감리교회 · 밀알교회 · 보스톤감리교회 · 보스톤은혜장로교회 · 보스톤장로교회 · 보스톤조이풀교회 · 보스톤늘푸른교회 · 다윗들교회 · 보스톤서부장로교회 · 보스톤성경교회 · 보스톤한울교회 · 보스톤시온성교회 · 보스톤세일교회 · 보스톤주님의교회 · 보스톤중앙교회 · 보스톤필그림교회 · 보스톤한인교회 · 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 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 비전교회 · 새빛교회 · 생명복음교회 · 성요한연합감리교회 · 순복음보스톤교회 ·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 · 실로암교회 · 인디옥연합감리교회 · 임마누엘교회 · 임방교회 · 우스터장로교회 ·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 워싱턴프론티어교회 · 은혜진리교회 · 임마누엘연합교회 · 좋은감리교회 · 지구촌방주교회 ·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 케임브리지현인교회 · 켄지영생장로교회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톡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2



3

